

경북의사회가_만들어가는_따뜻한 이야기

경북의사회보

2010 Summer Vol.38

공지사항

2010년도 회원정기신고 및 회비 납부 안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안내
의료광고심의제도 관련 안내사항

특별기획

의정투 10년, 그날의 합성을 되새기며...

여름특집

우리고장 시원한 계곡을 찾아서...



경상북도 의사회

Gyeongbuk Medical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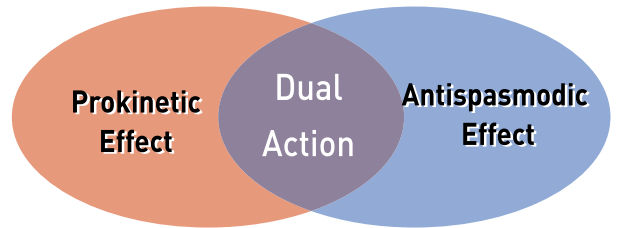


G.I. Motility Regulator

Polybutine®

Trimebutine Maleate

One for all , All for one...It's Polybutine !!!



[소화관 운동 관련 제 증상]

- ☞ 위 식도 역류 질환 ☞ 과민성 대장 증후군
- ☞ 소화불량 ☞ 설사
- ☞ 위염, 위궤양 ☞ 변비, 복통

에는 Always 포리부틴을 !!

약물 작용 부위가 광범위합니다.

- 위장관 상부로부터 하부에 이르기까지 약물 분포 범위가 넓어 각종 소화기 증상에 유효

증상개선이 합리적입니다.

- 단순진경이나 위장관 촉진 작용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상인의 위장관 상태로 위장관 운동성을 조절

안전한 약물입니다.

- 중추 신경계 부작용이 없어 안전
- 약물 상호 작용이 없어 각종 소화기 질환에 병합처방이 용이
- 장기 복용이 많은 소화기 질환 및 노약자, 유소아의 습관성 구토 투여에 적합



[성분·함량] Trimebutine Maleate 300mg
[보혈약가] 415원/T
[효능·효과]
 식도역류 및 열공헤르니아, 위·십이지장궤양에 있어서의 소화기능이상(복통, 소화불량, 구역, 구토), 과민성 대장증후군 및 경련성 결장, 소아질환 : 습관성 구토, 비감염성 장관통과장애(변비, 설사), 동요자극, 수면장애
[용법·용량] 1일 2회, 1회 1정 공복시 복용
[약효·약리]
 말초성 위장관운동 조절인자 Enkephalin Agonist로서 항진되거나 억제된 위장관 운동을 정상화 시킴

※제품에 대한 의문 사항은 삼일제약 소비자 상담전화(02-5200-360) 또는 마케팅본부(02-5200-475)로 문의 바랍니다.

Contents

2010년 여름호 (제38호) **경북의사회보**



22_



53_



표지설명
제32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중 축구대회

발행인 이석균 편집인 김중영
 발행일 2010년 7월 15일
 발행처 경상북도의사회
 편집위원장 김재왕
 편집위원 김중영·문기혁·김종규·장태영
 [702-824]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2동 404-4
 TEL.(053) 941-7785 FAX.(053) 941-5557
 홈페이지 www.igbma.or.kr
 제작처 선전애드_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 600-5
 TEL.(053) 555-3336 FAX.(053) 556-3273

- 4 특별기고
- 5 대회원서신
리베이트관련법 통과에 따른 호소문
- 7 포토뉴스
사진으로 다시보는 제32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입선작
- 17 삼행시 및 사행시 입선작
- 18 회무소식
제32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성황리 개최
한국의료살리기 결의대회 개최
2010년도 본회 임원 및 시군회장 워크숍 개최
- 24 회무단신
- 28 공지사항
- 33 분회 및 병원소식
- 40 지역의사회 탐방
경주시의사회 / 의성군의사회
- 44 특별기획
의쟁투 10년, 그날의 합성을 되새기며... · 변영우
- 50 특별좌담
2010년 6.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경험하면서 · 최중근
- 53 여름특집
우리고장 시원한 계곡을 찾아서... · 장태영
- 56 회원 문예
mania를 찾아서_ 처음 Ski 타던 추억 · 장석범
- 58 개원이전현황 · 서울지하철 노선도

본회 주요 연중행사 일정

2010. 4. 7	제38회 보건의 날 기념식	2010. 7. 15	제38회 경북의사회보 여름호 발간
2010. 4.	제37호 경북의사회보 봄호 발간	2010. 9.	회원 및 가족등반대회
2010. 4. 25	제62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2010. 10. 16~17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
2010. 5. 1~2	임원 및 시군의사회장 워크숍	2010. 10.	제39호 경북의사회보 가을호 발간
2010. 5. 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2010. 11. 7	경북의사회 추계학술대회
2010. 5. 15~16	제32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학술대회, 친선의 밤, 의학제)	2010. 11.	대구경북의사회와 함께하는 TBC무료개안수술
2010. 5. 16	전국의사등반대회	2010. 12.	연말 복지시설 방문
2010. 5.	2010년도 회원정기신고	2011. 1.	제40호 경북의사회보 신년호 발간
2010. 6. 5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	2011. 3.	2010년도 전체이사회
2010. 6. 18	의사 생물테라 대응 역량 강화교육	2011. 3.	2010년도 회무감사
		2011. 3.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소통과 통합으로 화합과 협력의 시대로 선도적 역할을 기대합니다.

제38호 「경북의사회보」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간존중의 건강한 사회를 지켜나가고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 또 사랑의 인술을 통한 빛나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자리해 오신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경북의사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은 더욱 값진 것이었습니다. TBC무료개인수술, 웰빙봉사단 무료진료,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다문화가정 돕기 등 봉사의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그런 바쁜 와중에도 의학발전과 자기계발을 위한 춘계학술대회, 경북의학제 등 학술활동뿐만 아니라, 독도경비대 구급의약품 전달,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서명운동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고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마련하여 약진 경북의 디딤돌을 놓고 또 놓아왔습니다. 지금 동서로, 남북으로 경북의 경제 대동맥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포항·구미 국가공단, 경제자유구역, 부품소재 전용공단 등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는 큰 숲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천리 동해안,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백

두대간, 영남의 젓줄인 낙동강은 우리 삶의 터전으로 거둬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경북의 무한한 저력과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오신 의사회 회원 여러분 등이 지역발전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사회 회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엄청난 변화와 도전의 물결속에 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위기와 환경의 변화는 희망의 출구를 찾아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전략과 노력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도 현실 또한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환자들로부터 존경받고 사회로부터의 인정받는 분들입니다. 도민 의료뿐만 아니라 위기극복의 현장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통스럽고 시련이 있겠지만 우리의 삶도 빛이 오는 방향으로 나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지역의 선도적 지도자로서 자긍심을 가지시고,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회보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경북의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여러분의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2010년 7월
경상북도지사 김관용

리베이트관련법

통과에 따른 호소문

존경하는 경상북도 의사회원 여러분,

얼마 전까지 겨울인가 했더니 어느덧 고르지 못한 초여름이 되었습니다.

무엇하나 속 시원히 해결되는 것 없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악화되는 진료 환경 하에서 회원님들의 건강을 해치지나 않을까 걱정됩니다.

우리에게는 중대한 법안들이 천안함 사태와 전국적인 선거 열풍에 묻혀 버렸고, 더구나 리베이트와 관련된 쌍벌제가 191:0으로 국회 통과되는 비통한 현실은 우리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이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십과 단합이 더욱 필요한 시기에 의료계는 오히려 내분을 겪고 있는 사태를 보면서 회무를 맡고 있는 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회원 여러분,

이제 정부는 우리 의사를 보건정책의 파트너로 생각지 않고 단지 자기들의 정치적 입장과 건강보험 재정만 생각할 뿐 의료의 앞날이나 국민의 건강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약제비 절감에 노력해 왔고, 차등수가제를 비롯한 원가의 70%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에도 최상의 진료로 한국의료로 선진국 반열에 올려 놓는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지난해는 신종플루의 국가적 재난을 우리들의 희생적 봉사로 극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로는 차치하고 의료계를 리베이트나 받는 부도덕한 집단이란 치유될 수 없는 자존심의 상처로 돌아왔습니다. 191:0이 말해주듯 어느 누구도 리베이트에 대해 우리편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참고만 지낼 수는 없습니다.

지난 5월 1일과 5월 8일 긴급 광역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갖고, 5월 13일 전국 의사 대표자 결의대회를 필두로 오는 6월 19일 2000년 의쟁투 1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의쟁투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15개 항의 대정부 요구사항 채택과 더불어 본 회에서도 5월 15일 결의문을 발표 하였습니다. 우리 의사회는 시군의사회장님과 광역시도의사회장들의 뜻에 따라 대규모 집회는 국민정서와 다르고 명분이 없다는 여론을 바탕으로 지양하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 투쟁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회원 누구도 이 법과 관련되어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차차 이런 법안은 불필요한 법으로 만들어 자연스럽게 폐기 되도록 크린 운동을 전개하려 회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려 합니다.

국민은 약과 관련된 리베이트를 엄청난 비리로 생각하고 있으며, 국회의 표결 결과도 이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 하였고 11월이 되면 시행됩니다.

그러나 우리 회원 누구도 이 법과 관련되어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차차 이런 법안은 불필요한 법으로 만들어 자연스럽게 폐기 되도록 크린 운동을 전개하려 회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려 합니다.

처방시 약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약을 회원님의 양심에 따라 처방하십시오. 약의 선택은 우리 의사들의 고유 권한임을 잊지 맙시다.

처방과 관련된 어떠한 유혹과 의혹도 과감히 떨치시고 이러한 상황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제약회사 영업사원과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의심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약에 대한 정보는 학회나 미디어, 인터넷 및 의사회를 통해 제공받도록 합시다.

의약품 처방 내역서를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합시다.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 편의제공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내부 고발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의약품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약가 변동사항을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일부 성적을 발표하였으며, 높게 책정된 복제약의 약가를 인하할 것을 정부에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복제약의 약가가 높은 가격으로 정부에서 고시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 여론을 환기시켜주시고 약가 인하에 동참 해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회원 여러분,

지금 의료계는 개원가·병원·개원의협의회·100여개에 달하는 학회·봉직의·전공의 등으로 사분오열로 나뉘어 한 목소리를 내질 못합니다. 어떠한 정부가 탄생해도 의사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는 “의사들의 생존”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앞으로의 투쟁을 위해 단합과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가 회원들의 정서에 맞추어 점차적으로 투쟁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투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때 일수록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기다리면서 내일을 준비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건승을 빕니다.

2010년 6월

경상북도의회사회 회장 이 석 균 배상

사진으로 다시보는 제32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춘계학술대회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13:00)



하나둘 모이시면서 시작된 의사의 날



시작했어요, 들어오세요.(14:00)



스물...서른...(14:30)



3



2

1. 이백...삼백...(16:00)
2. 잠시 숨도 고르고, 친구도 만나시고(16:30)
3. 서서히 몰입의 경지로(17:00)

춘계학술대회



1



2



3

1. 회장님 환영인사에 이어(18:00)
2. 경만호 회장의 의료현안 설명에(18:05)
3. 숙연해지는 분위기



우리... (18:30)



4

5



4. 이봉구 회원(경주)의 예리한 질의
5. 장기호 회원(경산)의 참신한 질의가 있고
6. 우리는 하나로 뭉쳤습니다



한국 의료살리기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합니다(19:00)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1. 친선의 밤을 여는 안동시의사회 중창단(20:00)
2. 의협회장의 격려금이 전달되고(20:10)
3. 박일영 기획이사의 진행으로



의장님~(20:15)



고문님과 내빈도(20:20)



심사위원장의
심사기준 설명에 이어(20:25)



4. 분위기는 점점 더 무르익어가고(20:30)
5. 천상의 선녀 정은희 양
6. 다정한 김석준 · 헤민 남매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영성이 깃든 이요성 회원



백현우 회원의 멋진 연주에



군살하나 없으신 특별한 김성규 심평원 지원장 커플



중간에 목도 축이면서(신은식 고문 21:00)



김동주 회원



김민석 군



초대가수에 한형원 기획이사



축하해준 시도에 감사



심각한 심사위원들



용감한 어린이들 수고했어요(21:30)



이렇게 밤은 깊어갑니다(21:40)



경북의학제



회원보다 선물이 많은것 아냐?(13:30)



1

1. 짝을수록 좋은 개회인사(13:40)
2. 전년도 우승기가 반환되고(13:45)
3. 다함께 국민체조(13:50)



2



3



문기혁 회원의 선서에 이어



경기 시작전 O,X퀴즈로 분위기를 띄우고(14:00)



웃음으로 점점 달구어



골프피칭 대회 애 골 아 퍼!



바둑대회 심각하네!



큰공도 차고, 우의도 다지면서

경북의학제



작은공도 치는 가운데



아이들도 즐겁게(15:00)



호흡도 잘 맞추었죠!



조용히 그러나 엄정한 심사를 거치면서(16:00)



마침내



대상에 김용진 군



장원에 김혜경 가족(강준호 · 이봉구 회원과 함께)





테니스 대회 선수일동



엄청난 행운은 서영진(포항) 회원이(17:10)

종합점수표

※종목별 성적

왕기 종목	동부지구	서부지구	남부지구	북부지구
배드민턴	1:0	2:0	2:0	3:0
탁구	2:0	4:0	3:0	4:0
2인3자합격제	3:0	1:0	4:0	4:0
골프퍼팅	1:0	2:0	2:0	2:0
술놀이(남성)	14:0	2:0	11:0	3:0
술놀이(여성)	4:0	3:0	3:0	1:0
OX퀴즈	1:0	1:0	1:0	1:0
종합점수	2.00	4.00	3.00	2.00

※종합성적

종합우승:	동부 지구	준우승:	북부 지구
3위:	남부 지구	4위:	서부 지구

※종목별 우승팀

배드민턴:	동부 지구	탁구:	북부 지구
2인3자합격제:	서부 지구	골프퍼팅:	서부 지구
술놀이(남성):	동부 지구	술놀이(여성):	남부 지구
탁구:	북부 지구		

마지막 성적표가 떴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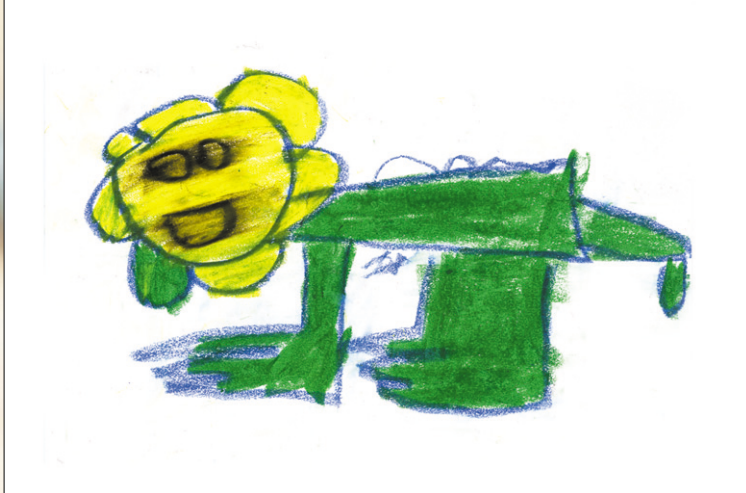


동부지구가 시작하면서 말긴 것 다시 가져갔죠(17:20)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17:30)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입선작 (주제 _ 봄날)



대상 | 김용진 군
(안동성소병원 김성우 회원자녀)



금상 | 이건호 군
(경주, 계림내과의원 조현숙 회원자녀)



은상 | 윤다인 양
(포항, 선린병원 윤인기 회원자녀)



장려상 | 서원일 군
(경주, 맘존여성병원 김연경 회원자녀)



장려상 | 김준우 군
(경산, 한마음산부인과의원 김학준 회원자녀)



장려상 | 이연우 양
(경산, 경북신경외과의원 이한영 회원자녀)



장려상 | 김요한 군
(울진의료원 김현일 회원자녀)



장려상 | 박혜진 양
(김천의료원 박진열회원자녀)

삼행시 및 사행시 입선작

지난 5월 16일(일) 경주코오롱호텔 야외정원에서 열린 제32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삼행시 및 사행시 「무소유, 서해바다」의 시제에 총 60여 작품이 출품되어 입선된 작품이다.

| 장 원 |

서 해 바 다 _ 김혜경(경주, 강준오 회원 가족)
서로의 정감과 미소를 나누기 위해
해마다 열리는 의사 가족들의 한마당
바쁘게 진료하느라 수고하시는 우리 남편들
다시 원기충전하여 어진 진료 베푸세요!

| 차 상 |

서 해 바 다 _ 서보완(경주, 중앙병원)
서럽고 애닦도다
해맑은 천안호 젊은이여
바다를 사랑하였으니
다 잊고 편안히 잠드소서

무 소 유 _ 이시현(포항, 이현석 회원 자녀)
무서운 병을 치료해주시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시는
(유)You are the best doctors

| 차 하 |

무 소 유 _ 박소현(안동, 박기도 회원 자녀)
무처럼 단단한 우리 아빠
소처럼 부드러운 우리 아빠
유명한 명성보다 따스한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는
우리 아빠 같은 의사가 될래요

무 소 유 _ 신연제(포항, 하나이비인후과의원)
무리한 의약분업 환자들은 우왕좌왕
소외된 민초의사 시름만 깊어가네
유능한 집행부가 그림고 그림구나

무 소 유 _ 정만진(전, 울릉군보건의료원)
무서운 물기둥에 천안함이 두동강
소용돌이 물결속 사라졌네 46용사
유령같은 이놈들이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 참 방 |

무 소 유 _ 이동길(영천, 이동길내과의원)
무진장 속상한 의료현실이지만
소리치며 어울리는 오늘 경북의학계
유난히 화창한 이 봄날에 더욱 좋구려

서 해 바 다 _ 민정기(경주, 민연합이비인후과의원)
서라벌, 옛 천년신라의 도움
해돋이를 보기위해 남산을 올랐다
바다위로 떠오르는 천년전 하늘빛
다음생 다음하늘 어느곳에서 이 아름다움 다시볼까

서 해 바 다 _ 김효정(구미, 박정돈 회원 가족)
서해바다 깊이 잠들어 있는 우리
해군들의 아름다운 영혼들이여!
바랄것 없이 자랑스러운 당신들은
다음 생에도 대한의 해군으로 태어나길 바라리라



제32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성황리 개최

본회에서는 해마다 신지식을 배우는 춘계학술대회,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행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위한 경북의학제 등 '제32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가 2010년 5월 15일(토)~16일(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코오롱호텔에서 개최되었다.

2010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경상북도 의사회는 회원들의 자질향상 및 생애교육차원의 보수교육을 지난 5월 15일(토)부터 5월 16일(일)까지 경주코오롱호텔 오운홀에서 회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상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술연제와 특강 및 시청각 교육으로 구성되어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춘계종합학술대회 첫날 학술강연에는 이동석 학술이사의 진행으로 알레르기 천식과 비염의 최신 지견에 대해 정혜리 대구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의 강의와 투자자의 눈으로 본 세상의 변화에 대해 최영준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이사, 의료기관에서의 중점적인 노무관리에 대해 장인환 노무사의 발표가 있던 후 의협 경만호 협회장은 '의료산업화 그 도전과 과제'에 대한 발표와 최근 의료현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둘째날에는 TPI 개념과 실제요법에 대해 류기형 동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 등의 학



춘계학술대회 연제 및 연자

5월 15일(토) 14:00

▲알레르기 천신과 비염의 최신 지견 - 정혜리(대구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 ▲만성 질환에서 보완통합의학의 적용 - 정승필(영남의대 가정의학과) ▲A형 간염과 성인예방접종 가이드라인 - 김신우(경북

의전문 내과) ▲투자자의 눈으로 본 세상의 변화 - 최영준(에셋플러스자산운용) ▲의료기관에서의 중점적인 노무관리 - 장인환(노무법인 남경) ▲의료현안 - 경만호(대한의사협회장)

5월 16일(일) 09:00

▲당뇨병 치료의 해법 - 시청각(비디오)

▲TPI 개념과 실제요법 - 류기형(동국의대 재활의학과) ▲외래에서 흔한 우하복부 통증에서의 초음파 검사 - 권중혁(계명의대 영상의학과) ▲임상에서 흔히 보는 수면질환의 평가 및 치료 - 서완석(영남의대 정신과) ▲외래에서 흔히 보는 안과 질환 - 김형준(대구가톨릭의대 안과) ▲만성 간질환 치료의 해법 - 시청각(비디오)



정혜리 교수 정승필 교수 김신우교수 최영준 이사 장인환 대표 경만호 협회장 류기형 교수 권중혁 교수 서완석 교수 김형준 교수

술연제와 시청각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으며, 양일간 참석회원에게는 연수교육 12평점이 주어졌다.

이번 학술대회 접수는 의협 교육행사 전산화 지원 프로그램(OH-Members CS)을 이용한 등록이 이루어져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석균 본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32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을 맞아 먼길을 달려오신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의 이 행사를 기반으로 경상북도의 사회가 더욱 단결하고 단합된 힘을 축적하여, 필요하다면 힘차게 포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널리 알리자' 라고 하였다.

또한, 경만호 의협회장은 '불러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의료현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의협이 발전할 수 있으므로 건전하게 비판하고 견제함은 물론 도와주는 집단이 있어야 한다며, 의협 집행부를 믿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였다.

친선의 밤 행사서 김민석 군 대상 수상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를 축하하는 만찬과 더불어 그동안 회원 및 가족들이 같고 닮은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인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행사가 5월 15일(토) 오후 7시 경주코오롱호텔 오운홀에서 박일영 기획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사전 신청을 받은 8팀이 경연을 벌인 결과 김민석 군(경주, 김대인 회원 자녀)이 영예의 대상을 안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석균 회장을 비롯하여 본회 이병채·신은식·변영우·최종두 고문과 김성규 심평원대구지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시의사회의 중창단 open공연과 정은희 양(경주, 정동우 회원 자녀)의 한국 무용과 김석준 군과 김혜민 양(포항, 김대곤 회원 자녀)의 바이올린 2중주, 김동주 회원(구미)의 아코디언 연주, 백현우 회원(영주)의 색소폰 연주, 이요성 회원(안동)과 김민석 군(경주, 김대인 회원 자녀)의 독창으로 그동안 같고 닮은 숨은 실력을 선보여 한층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특히 김성규 심평원대구지원장 부부가 댄스스포츠(자이브)를 선보여 한층 더 빛나는 자리를 만드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김광만 심사위원장은 "회원들의 장기자랑 실력은 회를 거듭할수록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많은



대상을 차지한 김민석군과 가족



⬆ 행운권 대상의 서영진 회원
⬆ 종합우승의 동부지구(황석순 포함 회장)

참여를 바란다.”라며 심사평과 인사말을 대신하였으며, 이날 친선의 밤 행사에서 가장 많은 박수와 호응을 받은 김민석 군의 독창 ‘그림속 풍경’, ‘아빠 사랑해요’가 영예의 대상을 안았으며 우수상에는 김동주 회원(구미)이, 장려상에는 백현우 회원(영주), 정은희 양(경주), 김석준 군·김혜민 양(포항)이, 특별상에는 김성규 심평원대구지원장이 수상하였으며,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행사에 참가한 모든 회원들이 흥을 돋우는 자리를 마련하여 큰 박수와 갈채를 받았다.

경북의학제서 지난해에 이어 동부지구 우승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경북의학제는 회원상호간의 화합과 우의증진을 위해 도내 4개 지구별 대항전으로 5월 16일(일) 오후 1시 경주코오롱호텔 야외정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한형원·박일영 기획이사의 진행으로 시작된 경북의학제 행사는 야외경기로 펼쳐져 300여명의 회원 및 가족들이 각 지구별 대표 선수로 참여하여 열띤 경기를 펼쳤다.

이날 경북의학제에서 참석한 전 회원들과 가족들은 몸풀기 체조인 국민체조와 OX퀴즈를 시작으로 단체경기인 바둑, 족구, 2인3각릴레이, 골프피칭, 윗놀이(남성·여성), 탁구, OX퀴즈와 번외경기로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시조 및 3행시, 팬티릴레이 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총점 260점을 획득한 동부지구가 지난해에 이어 종합우승을, 준우승에는 북부지구, 3위 남부지구, 4위 서부지구가 차지하였다.

또한 회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사행시에는 ‘서해

바다’와 ‘무소유’를 시제로 진행되어 60여편의 출품작 중에서 김혜경 씨(경주, 강준오 회원 가족)가 장원에 입선하는 영광을 안았으며,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봄날’을 주제로 50여편이 출품되어 대상에 김용진 군(안동, 김성우 회원 자녀)이 대상을 차지하여 트로피와 상품을 수상하였으며, 테니스대회에서는 최진교·김성환 선수조가 우승을, 김지홍·권오양 선수조가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이밖에 디지털카메라, 자전거, 선풍기등의 많은 경품을 준비하여 진행된 행운권 추첨에는 회원과 가족들의 뜨거운 호응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내년에는 더욱 더 알찬 행사로 진행할 것을 기약하며 제32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의 모든 행사를 마쳤다.

| 종합점수표 |

경기종목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바둑	50	20	40	30	
족구	20	40	30	50	
2인3각릴레이	30	50	40	20	
골프피칭	40	50	30	20	
윗놀이	남성팀	40	30	20	50
	여성팀	40	20	50	30
탁구	40	30	20	50	
OX퀴즈			15		
종합점수	260	240	245	250	

- 종합우승 : 동부지구 ■ 준우승 : 북부지구
- 3위 : 남부지구 ■ 4위 : 서부지구



한국의료살리기 결의대회 개최

제32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을 행사와 함께 한국의료 살리기를 위한 회원 결의대회가 2010년 5월 15일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한형원 기획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5월 13일(목)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확립을 촉구하는 전국 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향후 대규모 집회 등 의료계 대응방향과 더불어 본회에서는 의약분업, 약가정책 등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정부의 정책실패를 규탄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의료살리기 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경과를 설명하였다.

이어 김광만 부회장이 낭독한 결의문 채택에서는 ▲ 건강보험 30년, 의약분업 10년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강제 의약분업 완전 철폐 ▲의료 공급자 및 소비자의 자율 선택권 보장 ▲특허 만료이후의 약가를 대폭 인하하고, 기등재된 오리지널 및 제네릭 약가를 소급 인하 ▲약속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및 강화 ▲차등수가제 완전 폐지 ▲현행 불공정한 공정거래규약을 폐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추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관철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였다

한국의료살리기를 위한 결 의 문

우리는 30여년전 건강보험 전면도입 이래 월가에도 못미치는 저수가 정책과 정부의 의도적인 의사죽이기 정책에도 묵묵히 국민건강을 위해서 인내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의료 현실에 우리 의사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건강보험 30년, 의약분업 10년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강제 의약분업을 완전 철폐하라!

하나. 의료 공급자 및 소비자의 자율 선택권을 보장하라!

하나. 특허 만료이후의 약가를 대폭 인하하고, 기등재된 오리지널 및 제네릭 약가를 소급하여 인하하라!

하나. 약속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 및 강화하라!

하나. 차등수가제를 완전히 폐지하라!

하나. 현행 불공정한 공정거래규약을 폐지하라!

하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경상북도의사회는 정부의 대응을 주시할 것이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관철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2010년 5월 15일

경상북도의사회 회원일동



2010년도 본회 임원 및 시군회장 워크숍 개최

이날 워크숍에서는 본회 임원 및 시군 의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41대 집행부의
역점사업목표인 '지역사회와의 소통'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마련하였다.

지난 2010년 5월 1일과 5월 2일 양일간 영남대학교 국제관에서 2010년도 경상북도 의사회 임원 및 시군의
사회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본회 의료봉사단을 구성키로
결의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본회 임원 및 시군 의사회장이 참
석한 가운데 제41대 집행부의 역점사업목표인 '지역사
회와의 소통'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마련하였으며, 이
석균 회장을 대신해 김광만 부회장(워크숍 준비위원장)
은 인사말을 통해 '멀리서 참석해주신 임원 및 시군회장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워크숍을 바탕으로 발
견된 토론이 되어 좋은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 라고

하였으며, 정만진 대의원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워크숍
주제인 지역의사회 소통을 위해 우리 의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라고 하였다.

이어 김광만 위원장의 주재로 시작된 워크숍 주제발
표에서는 본회 박일영 기획이사로부터 지역사회와의 소
통에 대해 참여 방법, 자원봉사 등에 대한 발표에 이어
한형원 기획이사의 포항지역 사례발표에서 '의사는 의
료 그 자체로서 사회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 포항
지역에서는 청소년 문신 무료 제거 수술과 모자원 가족
들과 함께하는 송년의 밤 행사 등을 토대로 사회와의 소
통에 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본회 의료봉사단을
구성하여 300만
도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구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위임키로
하였다.

임원 및 시군의회사회장 워크숍 주제발표



박일영 기획이사 한형원 기획이사 류성훈 구미회장 이종규 울진회장

또한 구미지역 사례발표에서는 류성훈 구미회장으로부터 구미지역 지역아동센터 등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의 지원 연계망을 가지고 있는 구미 YMCA와 결연을 맺고 건강강좌와 환자 진료 등을 지원키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의료봉사와 관련해 이종규 울진회장으로부터 진료실 밖의 진료라는 주제로 해외의료봉사, 난민촌 및 재난지역의 의료봉사활동 내용을 설명하였다.

자유토론 및 종합평가에서는 각 지역아동센터등과의 협약 방안을 연구 검토키로 하고 본회 의료봉사단을 구성하여 300만 도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구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위임키로 하였다.

이튿날에는 친선도모를 위하여 팔공산 갓바위 등산과 체력단련으로 우의를 다졌으며, 이석균 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워크숍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사업을 구상하여 서로 상생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자' 라고 하였다.



의협 의쟁투 10주년 기념행사



지난 6월 19일(토) 2000년 의권쟁취 투쟁을 이끌었던 1~5기 의쟁투

인사와 시도 의사회장 및 의장단 초청 기념행사를 열고 10년 전 뜨거웠던 그날의 함성을 되새겼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의료제도 및 정책 개선을 위해 의쟁투를 잇는 새로운 투쟁체를 신설하고, 투쟁과 협상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쟁투 10주년 기념식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2000년 의권쟁취 투쟁 당시 개인적 희생을 감내하고 온 몸을 던져 투혼을 불살랐던 의약분업 저지 투쟁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음을 잘못된 의약분업의 결과가 여실히 증명한다”면서 “10년 전 미완의 투쟁을 거울삼아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투쟁에 앞장섰던 선도자들의 대회원 사과를 시작으로 꺼져가는 의료인의 자긍심을 일깨우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이룩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본회에서는 이석균 회장을 비롯한 정만진 대의원회 의장과 신은식·이원기·변영우 고문과 박재영 처장이 참석했다.

G20대비 보건소장 및 의사 생물테러 대응 역량강화 교육 실시

질병관리본부는 G20 정상회의 등 국가행사 대비 생물테러 감시 및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지난 6월 18일(금) 오후 2시부터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대비 보건소장 및 의사 생물테러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전국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의료관계자와 시도별 치료거점병원 생물테러 담당 의사가 참석한 가운데 ‘세균테러 주의보’ 비디오 시청을 시작으로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로부터 생물테러 및 두창테러 대비

아이낳기좋은세상 현판식



지난 6월 8일(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경북운동본부 현판식이 열렸다. 이날 현판식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 지회에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경북운동본부 대표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산대책회의와 현판식을 가졌다.

대표위원 회의는 경북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중심이 되어 종교계, 여성계, 언론계, 교육계, 보건의료계, 사회단체 등 33개 직능단체가 동참, 2009년 실적평가, 2010년 단체별 실천과제 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결혼지원, 출산 육아지원, 보육과 돌봄 서비스,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인식개선 등 저출산 극복 5대 과제사업을 중점으로 제안됨에 따라 경북도는 제안된 각 사업의 실행 여부를 판단 앞으로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대표위원 회의 및 현판식에는 본회 이석균 회장을 대신해 박재영 사무처장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함과 더불어 현판식에 동참했다.

및 대응교육이 있었다. 이어 동국의대 최대해 응급의학과 교수로부터 생물테러 환자 발생시 의료기관 대응의 교육이 있은후 종합토론이 있었다. 참석한 의사 회원에게는 대한의사협회 평점 4점이 주어졌다.



의협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지난 4월 26일(일) 오전 9시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제62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된 가운데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상생’과 ‘회합’을 강조하는 한편, 의협 집행부에 대해서는 전국의 회원들이 보람을 갖고 의사라는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금년도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4.4%(13억 6328만원) 증가한 326억 1072만원이 통과됐으며, 의협회장 간접선거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의협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는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부결됐다.

또한 오는 6월 20일은 10년 전 의권쟁취투쟁을 위해

2010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 실시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제68조와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한 2010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이 지난 2010년 6월 5일(토) 오후 4시부터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3층 마뻬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저탄소·녹색 성장의 시정각 교육을 시작으로 대구지방환경청 강석재 환경관리과장의 폐기물정책 및 관련 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질의 및 응답) 강의에 이어 김재환 환경관리팀장의 폐기물관리실무(RFID 기반의 의료폐기물관리 시스템) 및 질의 및 응답 순서로 강의를 이루어졌다.

이번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별로

처음으로 의료계가 파업에 들어간 날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의약분업 저지 의권쟁취 투쟁 10주년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으며, 의협회지의 제작·발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e-저널’ 형식으로 배포하기로 의결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의협 차원의 구체적인 방안과 국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저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회비 납부 회원에 대한 무료 청구프로그램이 배포되고 월 관리료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며, 건강보험과 관련된 토의에서는 매년 상정돼 온 안건과 같거나 비슷해 건강보험 관련 현안의 해결이 중요함을 드러냈다.

이어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야말로 한국의료 발전의 초석”이라며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국민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안겨주고 있는 졸속 의약분업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라”는 입장을 밝히는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총회 본회의에 앞서 시상식에서는 본회 정만진 대의원회 의장과 김재왕 대의원이 공로패를 수상하였으며, 박재영 사무처장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본회에서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이원기·변영우·정만진·이석균·김동욱·김재왕·김광만 대의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와 환경부가 주최하고 대구·경북의사회가 공동 주관하여 대구·경북 지역 46곳의 회원 및 의료기관 의료폐기물배출 담당자가 참석하여 교육이 이루어졌다.



의사회보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 개최



본회 회무홍보 및 지역의사회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경북의사회보 제38호 여름호를 발간하기 위한 편집위원회가 지난 5월 26일(수) 과 7월 2일(금) 오후 7시 30분 본회 사무처에서 개최됐다.

이날 편집위원회에서 김재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멀리서 참석해주신 편집위원께 감사드리며, 이번 여름호도 회원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읽을거리가 있는 회보가 발간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라고 하였다.

이어 김종영 공보이사로부터 지난 제37호 봄호 발간 내용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제38호 여름호 회보 발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번 여름호는 제32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의 이모저모, 각종 회무소식 및 단신, 분회 및 병원소식과 더불어 의사회탐방으로는 경주주의사회와 의성군의사회를 선정과 더불어 회원문예로 구성키로 하고 원고청탁을 의뢰키로 했다.

또한, 여름철 휴가를 맞아 휴가철 가볼만한 곳을 테마로 경북지역의 비경을 소개키로 하는 한편 여름호 의사회보는 7월중 발간키로 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기로 했다.

포항지역 병원장 간담회



본 회 에 서 는 포항지역 고문단과 종합병원장, 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8일(목) 오후 7시 포항 바닷속물회식당

에서 연석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석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석해준 고문님과 병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회 회무에도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하였으며, 이어 김광만 부회장으로부터 참석자 소개와 더불어 최근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이병채탐봄칠이원기 본회 고문과 이석균 회장을 비롯한 김광만 부회장, 한형원 기획이사, 신명준 보험이사, 박재영 사무처장이 참석하였으며, 황석순 포항회장과 송국현 선린병원장, 김용필 포항성모병원 의무원장, 서동권 포항세명기독병원 진료부장, 이태영 사랑병원 부원장, 임경삼 시티병원장, 조기현 여성아이병원장, 정상윤 포항여성병원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DUR전국확대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처방·조제시 필요한 정보를 요양기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임에 따라 DUR시스템 전국 확대에 앞서 의견수렴을 위해 시도 의약단체(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병원협회) 간담회를 지난 6월 28일(월) 오후 7시 심평원대구지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본회 이석균 회장을 비롯하여 김제형 대구시의사회장 등 대구·경북지역 의약단체장과 심평원 및 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DUR시스템의 운영 현황과 DUR 대상 의약품 선정 및 관리 방안, 2010년 전국 확대 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신현수 안동의료원장 재선임



신현수 안동의료원장이 지난 7월 1일자로 일곱번째로 다시 선임돼 이날부터 3년 임기를 새로 시작했다. 신 원장은 1992년 첫 부임 이후 모두 일곱번째 안동의료원장에 선임되는 국내 최장기록을 세웠다.

신현수 원장은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경상북도축구협회 회장,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장, 대구경북병원협회장,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사, 한국·스웨덴친선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인주철 경산 세명병원 명예원장 취임



인주철 경산 세명병원 명예원장은 “45년 의료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지역민들에게 도움 되는 의료인이 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인주철 명예원장은 경북의대 정

형외과 과장, 경북의대·영대의대 교수를 역임하고 법인 2~3대 경북대병원장을 지냈으며,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장도 맡았다. 또 지난 2005년부터 제5~6대 대구보훈병원장을 지냈다.

현재 경북의대 명예교수와 대구보건의료협의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6월 7일부터 경산 세명병원 명예원장으로 정형외과 진료를 시작한다.

변승열 포항의료원장 재선임



변승열 포항의료원장이 지난 6월 25일자로 포항의료원장으로 재선임됐다.

변승열 원장은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포항시의사회장등을 역임하고 포항의료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09년 지역거점공공병원 QI경진대회'에서 복지부장관상 우수상, '2009년 지역거점공공병원 6시그마 추진 성과 보고대회' 금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화재 의료기관 회원 위로 방문



본회 이석균 회장과 구미시의사회 류성훈 회장은 지난 6월 25일(금) 오후 7시 구미 열린연합이비인후과 의원(김대식·최재환 회원)을 방문하

여 화재발생에 따른 위로의 자리를 마련하고 금일봉을 전달하였다. 열린연합이비인후과의원 화재발생은 지난 4월 6일(목) 22시경 전기누전(추측)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경찰추산 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본회 제13차 상임이사회(2010. 4. 8)에서는 회원 의료기관 재난 및 재해(화재·수해 등)시 위로금을 전달키로 의결한 바 있다.

천안함 희생 장병 조문

본회에서는 지난 4월 27일(화) 오후 1시 경상북도청 대강당에 마련된 천안함 침몰 사고로 희생된 장병들의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날 조문에는 이석균 회장을 비롯한, 이정기 의무이사과 박재영 사무처장이 조문하고 희생 장병들의 넋을 기렸다.



2010년도 회원정기신고 및 회비 납부 안내

매년 실시되고 있는 회원정기신고는 의료법 제28조제3항 및 의협 정관 제6조의2(회원의 의무) 제2,3,4항에 의거 회원의 지역분포 및 취업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사인력수급계획과 의사회 회무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의사회비는 의사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책단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이미지를 고양하는 한편 회원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사용되고 있사오니 2010년도 회원정기신고 및 회비납부가 기한내에 실시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가. 신고대상 :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도내거주회원)

나. 신고기간 : 2010년 6월 1일(화) ~ 7월 31일(토)

다. 입금계좌 : 농협 301-0012-0507-61 경북의사회

라. 의협회비 면제 및 감면 대상(정관세칙 제5조)

(1) 회비 면제회원

- 1) 만 70세이상 회원(1940년 5월 1일 이전 출생자) : 의협 및 특별회비·분담금(단, **경북도의사회비는 '가회원' 250,000원, '나회원' 125,000원 납부**)
- 2) 질병, 신체장애,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회계연도중 12개월 이상 진료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회원
- 3) 공직, 봉직의사로서 정년퇴임 후 경제활동이 없는 회원
- 4)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타 분야 전업 회원
- 5) 기타 사유로 생계가 극히 곤란함이 인정되어 면제를 요청하는 회원

※ 회비면제회원 신청 : 해당회원의 증빙자료 첨부 신청

(2) 회비 감면회원

1) 개원회원(가 회원)중 '나 회원회비 적용대상

: 492,000원 징수

- 만65세이상 회원 : 1940년 5월 1일~1945년 4월 30일 주민등록표상 기준

마. 회원기록부 신고방법

- 1) 회원기록부에 인적사항 누락 또는 변경사항을 정확히 수정 기재 후 날인
- 2) 전산입력된 기록부가 없는 회원은 공란(백지)용지에 상세히 기록 날인
- 3) 회원 개인 신상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웹방식 신고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접속 → 로그인 → 회원정보관리 → 상세회원정보 → 변경내용 수정

구 분	가회원		나회원	다회원	라회원	비 고
	개원회원	감면회원	근무회원 휴직회원	전공의회원	공보의회원	
대한의사협회비	330,000	242,000	242,000	137,000	105,000	연회비·구독료·연구소 회비·학술대회분담금
경북도의사회비	250,000	250,000	125,000	75,000	-	
계	580,000	492,000	367,000	212,000	105,000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근로능력판정제도 개선사항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신규 기초수급자에 대하여 질병부상자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의 경우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능력을 판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병의원(한의원 제외)에서는 내원자가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진단서(읍면동 제출용)를 요청할 경우 「의학적 평가기준(2010. 3. 4개정)」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7월 1일부터는 기존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재판정 실시로 인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근로능력판정'이란?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는 선정 여부 및 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그 기준으로 연령(18세 미만 65세이상), 장애(중증장애인 및 일부 4급이내), 질병·부상 및 기타 근로가 곤란한 경우 등을 정하고 있음.

○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 절차

질병·부상자의 경우에는 질병·부상 정도와 활동능력을 함께 고려

- 1차 평가 : 의사가 (의학적 평가 기준)에 따라 해당 환자의 상태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단계로 표시
- 2차 평가 : 담당공무원이 1차평가를 토대로(활동능력평가 기준)에 따라 면담 또는 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근로능력 여부판단

○ 병·의원 협조사항

-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 일정에 따라 기존 수급자의 경우 7월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정 실시
- 내원 환자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금년 3월 4일 배포한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
 - 진단서 양식이 없는 경우 병원 전산 유지보수관리 업체에 문의하여 업로드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은 병원별로 일반진단서 발급과 동일 처리

※ 참고사항

- 의학적 평가기준(2010.03.04) - 보건복지부 → 정보마당 → 간행물 발간자료 → 게시번호 693번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 - 보건복지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현행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서식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단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진단 질환명	질환명(1)	KCD 분류번호	진료기간	. . . ~ . . .	
	질환명(2)	KCD 분류번호	진료기간	. . . ~ . . .	
장애등급 여부	장애내용		장애등급		
치료 경과 내용	평가대상질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				
	2)				
평가 내용	<평가대상질환 보기> 평가 대상질환을 적고, 해당하는 단계를 V 표시 ① 근골격계 ② 중추(뇌·척수) 신경기능계 ③ 정신신경계 ④ 감각기능계 ⑤ 심혈관계 ⑥ 호흡기계 ⑦ 소화기계 ⑧ 비뇨생식계 ⑨ 내분비계 ⑩ 혈액질환계 ⑪ 피부질환계				
향후 치료계획	1) 관찰요양(), 2) 통원치료나 약물치료 요양(), 3) 적극적인 입원이나 수술요양()				
재진단 필요사유				재진단 시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20					
의료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전문과목	의사 면허번호			성 명	(인)

210mm × 297mm [일반용지(60g/㎡(제합용용))]

의료광고심의제도 관련 안내사항

의료광고심의제도 관련 규정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

- ①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심의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광고 심의대상 및 업무 위탁 관련 근거

의료법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
- ②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에 각각 위탁한다.
 1. 의사회 :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조산원이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 치과의사회 :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이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3. 한의사회 :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인단체가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구에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의료광고심의신청 안내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주소

: www.admedical.org(심의접수 및 최종승인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

(2) 심의신청 방법

: 상기 홈페이지로 접속 → 로그인(회원가입) → 상단 메뉴의 [심의시스템]에서 [심의신청하기] 클릭 → 심의신청 → 심의수수료 납부 → 접수완료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개최일자가 매주 화요일 18:30이고, 심의자료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송부되어야 하므로(사무국 예비검토일 2~3일 감안), 수요일 18:00 이후 접수자는 다음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됨. 즉, 전전주 수요일 18:00 이후부터 전주 수요일 18:00 이전까지 접수한 사전심의 안건을 금주 화요일 17:00 개최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됨.

위반에 의한 처분사항 안내

(1)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호)

- 의료인이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법 제56조 제2항 제9호 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심의 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법 제66조 제1항 제7호	· 1차 위반 : 경고 · 2차 위반 : 자격정지 15일 · 3차 위반 : 자격정지 1개월

- 의료기관이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기준법 제56조제2항제9호를 위반하여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 제5호	· 1차 위반 : 경고 · 2차 위반 : 업무정지 15일 · 3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

(2) 의료법 벌칙 규정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법 제89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Notice 공지사항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문 및 각종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요약 안내합니다. 모든 공문 및 안내사항은 본회 홈페이지(<http://www.igbma.or.kr>)의 의사회소식 → 온라인 공문에 게재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은 가입하시어 유용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선관리대상장비 재정비에 따른 등록 안내

■ 최근 의료장비의 급속한 발전과 사용량 증가로 사회 각계로부터 의료장비의 체계적인 품질관리 방안 마련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심사평가원은 식약청 의료기기 품목 2-3등급 장비 중 영양급여 비중이 높고 동일장비에 여러기능이 있는 장비부터 우선관리할 예정이며, 심평원은 2010년도에 청력측정검사장비, 저주파치료장비, 골밀도검사장비에 대해 우선관리할 예정입니다.

구 분	관련 장비번호 및 명칭
청력측정검사장비	027 순음청력계기, 028 자기청력계기, 029 임피던스청력계기, 201 이음향방사검사기
골밀도검사장비	093-06 초음파골밀도측정기, 093-07 방사선흡수 골밀도검사장비
저주파치료장비	117 전기자극치료(EST), 118 저주파치료기(TENS), 119 간섭파전류치료기(ICT), 136 간섭저주파치료기(EDIT), 137 동통치료기(SSP)

심사오류 자체시정 서비스 안내

■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의료)급여비용의 심사결과에 심평원의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발생된 심사오류를 확인한 경우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조정청구 절차 없이 우선 또는 문서로 시정을 요청하면 즉시 바로잡아주는 편리한 심사오류 자체시정 서비스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홍보

■ 2010년 4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또는 발급을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사업자(단말기 판매업자)와 계약을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는 방법과 인터넷 PC를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관리기준 관련 고시개정

■ 보건복지부에서는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 및 관련 청구방법을 개정 고시하여 안내
· 주요 개정사항 : 중복처방 예외 인정기준 변경

기 존	개 정
출장, 여행, 예약날짜 등 사유시 180일 기준 30일 한도에서만 급여 인정	출장, 여행 사유 입력시 급여제한 없음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 및 진료과별 샘플 안내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 게시의 구체적인 범위 · 방법 등을 설명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을 시달하여 읍.

■ 이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에 대한 혼선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 지침을 안내하였음(5월 1일부터 지도 · 점검 예정).

대진의 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

■ 현재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 해외출장 기간 중에 다른 의사(대진)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의료법상 대진의 인적사항을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은 진료의사의 변경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심사평가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의 의료자원 정보연계를 이용하여 대진의 인적사항을 관할보건소에 신고한 경우 진료의사 변경내용을 심사평

가원 종합전산망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2010년 4월 30일부터 업무개발을 완료

■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대진의 관련한 요양기관현황 변경통보서 작성시 진료의 변경내용의 증빙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장애인연금제도 시행(2010년 7월) 안내

■ 보건복지부는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으며,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이 저소득 등록장애인임을 고려하여 협조 요청

- (1) 기존 등록장애인이므로 가능한 한 검사를 최소화
- (2) 장애진단시 보험수가가 정해진 검사는 보험수가 적용
- (3) 선택진료 청구대상에서 제외
- (4)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은 가능한 최소한으로 적용(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정부 지원단가는 15천원)

건강검진 당일 만성질환관리료 별도산정 안내

■ 현재 복지부 고시 및 행정해석에 의하면 건강검진 실시 당일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의사가 검진 이외의 별도 진료행위(진찰, 처방전발행, 주사 등)시 건강검진과 진찰행위는 진료과정의 연계로 판단되어 진찰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고, 진찰료를 제외한 비용은 요양급여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의협에서는 일선에서 제기된 '건강검진 당일 만성질환관리료 별도 산정 여부'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 만성질환관리료는 「건강보험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에 의하여 의원급 요양기관의 외래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의 상병으로 당해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내원하는 재진환자에 대하여 교육·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하는 수가로 외래환자진찰료와는 별도로 산정이 가능
- 2) 따라서 건강검진 당일 만성질환관리료(가-14, AH200) 산정 기준에 맞게 만성질환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만성질환관리료의 산정 및 청구는 가능함

가정간호기본방문료 등 산정관련 안내

■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의한 가정간호 활성화와 관련 적정한 가정간호를 유도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상자 선정 및 관련 진료비 청구 방법을 안내함. 가정간호는 입원대체 서비스로서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가정전문간호사를 2인 이상 확보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인정기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정간호의 대상은 진료담당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가정간호를 행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함.

나. 또한, 연 96회를 초과하여 계속 가정간호를 받을 경우에는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등의 비용을 환자본인이 전액 부담함

치료재료 구입관련 주기적 증빙자료 제출 사전안전제 실시

■ 요양기관의 치료재료 구입내역 신고와 관련하여 구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별도의 구입신고 없이 계속 사용하는 치료재료 품목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전액심사조정(F코드 : 증빙자료 미제출)되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다발생하고 있음.

■ 이에 심평원에서는 구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2개월전에 구입신고를 하도록 사전에 안내해 드리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2010년 6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사오니 각시군의회 및 병원에서는 치료재료 구입내역 신고(2년 연장신고 포함)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안내

사회복지시설 등의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 관련 기준 안내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의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원외처방전 발행 및 직접조제와 관련한 급여기준 및 행정해석등이 일부 변경안내

• 주요 변경사항 :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정신과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촉탁의 진료시 원내조제가능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동일)

분회 및 병원소식

포항시의사회

제14회 포항시의사의 날 행사 개최



포항시의사회(회장 황석순)는 지난 4월 25일(일) 제14회 포항시 의사의 날 행사를 위덕대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회원 및 가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의사의 날 행사는 축구, 족구, 윷놀이, 바둑, 투호 경기, 단축마라톤,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등이 열린 가운데 우승은 A팀(선린병원, 선린재활요양병원, 제13·14·15·16반)이 차지하였으며, 회원들의 단합과 친선을 도모하는 행사로 성황리에 열렸다.

포항 회장단 및 법대교수 간담회

지난 6월 15일(화) 오후 7시 우미향에서 포항시의사회 회장단, 기획·법제이사과 한동대학교 법학부 지승원 학부장, 신은주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현행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의료현안에 대한 회원과의 대화 개최



지난 7월 6일(화) 오후 7시30분 우미향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회원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

하여 허심탄화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이원기 의협 부의장, 김광만 경북의사회 부회장, 황석순 회장 외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최근 의료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견을 진솔하게 논의했다.

경주시의사회

심포지엄 개최



경주시의사회(회장 이봉규)는 지난 5월 25일(화) 경주 힐튼호텔 파인룸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황병욱 직전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동국대 경주병원 심장혈관내과 나득영 교수는 네비레트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강의를, 김소연 교수는 제3세대 베타블로커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제3차 확대이사회 개최



지난 5월 6일(목) 감포별미횃집에서 제3차 확대이사회가 열렸다. 이홍우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회무보고와 더불어 최근 의료현안에 대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

하였으며, 토의사항으로는 제32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 준비와 의료법 관련(의료광고, 의파라치 등) 대처방안, 기타 의료현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2010년도 춘계야유회 개최



지난 4월 24일(토) 화창한 날씨 속에 춘계야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4시 경주 남산 삼릉주차장에 집결하여 산행대장 이국형 회원의 남산에 대한 소개에 이어 삼릉-상선암-바둑바위의 경로로 산행을 진행했다. 등산 후 선구자상, 길잃은양상, 다람쥐상, 베스트드레서상(남/여), 최연소 등반상, 최다등반가족상, 산행대장상 등을 수여하였으며 반별 최다참가상에는 1반(황성동·현곡동) 반장 이복수 회원에게 수여했다.

동국의대 경주지역 동문간담회



지난 4월 21일(수) 영덕횃집에서 동국의대 경주지역 동문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창립기념으로 모인 자리

에서 사공정규 동국대 경주병원 진료의뢰회송센터장의 진행으로 이경섭 병원장과 이봉구 경주회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조종섭 원장(2회)이 동문대표로 답사를 했다. 또한 서정일·하동엽·이동욱 교수도 함께 자리해 축하했다.

안동시의사회

안동시의사회 골프대회 개최

안동시의사회(회장 김광인)는 지난 6월 13일(일) 떼제베이스트C.C에서 안동시의사회 골프대회를 열고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와 체력단련의 시간을 보냈다.

이날 골프대회에는 회원 42명이 참가하여 메달리스트는 안동 성소병원 내과 심상준 회원이, 뉴페리얼방식 우승은 중앙산부인과의원 권오일 회원이 수상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제2차 확대이사회 및 월례회 개최

안동시의사회(회장 김광인)는 지난 4월 15일(목) 부속한정식에서 제2차 확대이사회를 개최하고 반모임 결과보고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임원을 비롯한 최종두·최유근 원로회원, 박승국 성소병원장, 종합병원 진료부장, 각 반장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4월 29일(목) 미가회초밥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제32회 경상북도 의사의날 행사 등 준비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이날 손장락·최종두·최유근·이한양 원로회원과 임원 등 35명이 참석했다.

구미시의사회

구미시의사회 골프대회 개최

구미시의사회(회장 류성훈)는 제16회 골프대회를 지난 6월 20일(일) 영천 오펠GC에서 10팀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우승은 김동주 회원(구미차병원 안과)이 준우승은 김형수 회원(순천향대구미병원 외과)이 차지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장과 간담회 개최

지난 5월 18일 오후 7시 30분 금오산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0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건강검진 지원사업과 급여제한 여부 조희 등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영주시의사회

저소득 아동 건강관리 후원 협약



영주시의사회(회장 최경렬)는 지난 5월 14일(금) 영주 지역 병·의원과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간 건강

관리사업 및 구강보건 지원에 대한 후원협약을 체결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족을 집중 관리하고 보건·복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번에 후원협약에 참가한 의료기관은 영주기독병원과 백현우외과의원, 최소아청 소년과의원, 영주한방병원, 호치과의원 등이다.

영천시의사회

영천시의사회 골프대회 개최



영천시의사회(회장 이동길)는 지난 6월 6일(일) 경산 인터불고CC에서 영천시의사회 골프대회를 개최

했다. 12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친목을 다지는 좋은 시간을 가졌으며, 우승은 이종형 회원, 메달리스트는 이동길 회원이 각각 차지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산시의사회

제25차 정기이사회 개최



경산시의사회(회장 장유석)는 지난 5월 25일(화) 동보성에서 제25차 경산시의사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장유석 회장을 비롯한 이석균 경북의사회장, 손병욱·장기호 고문 및 임원이 참석하여 제32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 참석 경과보고와 함께 참석율이 우수한 3반(반장 김학준)에 대한 모범반 시상과 더불어 천종록 이사로부터 경상병원의 현황보고에 이어 각종 의료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했다.

울진군의사회

후포-평해지역 월례회 개최

울진군의사회(회장 이종규)는 후포-평해지역 월례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과 관내 지역에 신설된 간호학원의 실습인정 기관등에 대해 논의했다.

포항성모병원

지역 최대 종합병원으로 리모델링 공사 착공



포항성모병원이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최첨단·초현대 시설을 갖춘 지역 최대 종합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병원 측은 총 공사비 550억여 원을 들여 오는 2013년까지 본관 외래 및 입원 시설을 전면 리모델링할 계획이며, 특히 이 공사가 완료되면 병원 연면적은 현재 3만 5천154㎡에서 6만 1천265㎡로 넓어지며 병상규모 또한 현재 450병상에서 600병상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며, 내원환자의 편의를 극대화하여 동선을 최소화하는 등 격조 높은 인테리어를 통해 수도권 대형 상급종합병원 이상의 의료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불교회 의료봉사활동 실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불교회(회장 산업의학과 이관 교수)는 지난 4월 24일 경주시 강동면 왕산리 형산강문화네트워크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진료는 내과 김강 교수를 비롯한 6개 진료과(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영상의학과)와 교직원 50여명이 참여하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찰, 투약 등 진료활동을 펼쳤다. 특히 고가 의료장비인 초음파기까지 동원되는 등 전문적인 검사까지 시행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다.

안동병원

중동아프리카 의료관광단, 안동병원 '체크인'

안동병원에서 중동 아프리카 지역 의료관광단이 4월 20일부터 1박 2일 동안 안동병원 헬스투어를 체험했다. 알제리, 이란, 레바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5개국 현지 언론인으로 구성된 헬스투어 방문단은 20일 안동병원에 도착, 병원 게스트 하우스에서 머물며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다. 안동병원 해외의료검진은 일반프로그램과 심장, 소화기, 뇌, 복부 등 고급프로그램, 그리고 VIP검진, 프리미엄 검진 등 고품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협력 체결



안동병원과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이 지난 4월 28일 안동병원 컨퍼런스센터에서 협력병원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김용주 안동병원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노태호 가톨릭 중앙의료원 대외협력실장, 전후근 서울성모병원 암병원장 및 임직원이 참여해 양 병원의 긴밀한 협진체계를 약속했으며, 두 병원은 이번 협약으로 진료환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의학정보 교환 및 임상 연구, 학술 및 교육기회 공유, 경영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단장비 도입, 학술대회 개최

안동병원이 Biplane Angiography와 MDCT 128채널을 도입하고 기념 학술대회를 5월 19일 개최했다. 30억 원을 투자해 도입한 이번 장비는 뇌·심장 등 중증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적용하는 첨단장비로 국내에서 가동 중인 장비 가운데 가장 최신 장비이다. 안동병원은 뇌혈관, 심장혈관, 일반혈관질환에 각각 대학교수 출신을 비롯한 우수한 의료진이 3대의 혈관조영촬영기(Angiography)를 이용해 한해 3천8백여 건의 치료실적을 보이고 있다. 한편, 19일 열린 학술대회에는 지역의 보건의료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동익 연세대 영상의학과 교수, 최연현 성균관대 삼성의료원 영상의학과 교수, 허승호 계명대 심장내과 교수가 첨단 의료장비를 이용한 임상적 적용사례에 대해 강연했다.

28주년 개원기념일 추도제 열어



안동병원은 병원에서 치료도중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추도제를 13년째 지내고 있다. 매년 개원 기념일에 지내온 합동추도제는 199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3년째로 한 해 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영면하신 고인의 위패를 모시고 유가족을 초대해 함께 추모하고 위로하는 의식으로 지난 5월 26일(수) 오후 5시부터 안동병원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안동병원 강보영 이사장의 추도사를 시작으로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각 종교단체의 추모의식이 거행되고 의사, 간호사 및 직원들과 유족의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안동성소병원

육손이 무료수술로 사랑 실천

안동성소병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수술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의 양손 육손 기형을 갖고 태어난 어린이를 무료로 수술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봉화군 소천면 여모(남, 27개월)군은 태어날 때부터 양손 모두 육손 기형으로 열두 손가락으로 태어났으며 특히 오른손은 검지가 두 개로 검지에서 다시 엄지가 갈라져 나온 특이한 경우로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수술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에 안동성소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비 일체를 지원하도록 했고 성소병원은 곧바로 검사해 빠른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정형외과 이성호과장의 집도로 5월 25일 수술하게 됐다.

대구경북적십자혈액원과 공동 헌혈행사 열어



안동성소병원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랑 나눔 헌혈을 지난 5월 26일(수) 오전 9시부터 하루 동안 병원 정문 주차장에서 시행했다. 금년 '사랑나눔 헌혈캠페인'에는 성소병원이 제작한 "당신을 사랑합니다" 배지 달아주기 행사와 검해 실시되며 이번 헌혈행사를 계기로 더 많은 지역민들이 헌혈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있다.

성좌원 의료봉사, 도배·방역 등 봉사활동 구슬땀

지난 5월 29일(토) '별이 내려앉은 마을-성좌원'에서 사랑의 무료진료 및 자원봉사활동을 했다.

5월을 사랑의 달로 지정하고 여러 이웃사랑 행사를 개최해 온 성소병원(병원장 박승국)은 5월 마지막 행사로 직원 30여 명이 성좌원을 방문해 이날 하루 동안 치과(과장 이인철)와 이비인후과(과장 정상식) 무료진료와 성좌원내 아파트 한 채에 대한 도배봉사활동과 여름 맞이 방역봉사, 밑반찬 만들기, 생필품 전달 등의 여러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번 성좌원 봉사활동을 위해 직원들로 구성된 전도회(회장 정유진)와 공동으로 성좌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이 앓고 있는 잇몸병과 이비인후과 관련 약품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진료 후 처방, 전달할 계획이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가정의 달 기념, 가훈 써주기 행사



가정의 달을 맞아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이 5월 6일부터 7일까지 '가훈 써주기 행사'를 실시했다.

병원 1층 로비에서 열린 '가훈 써주기 행사'는 한국가훈서예 연구원장 '정선 양태상' 씨를 초빙해 즉석에서 무료로 가훈을 써주며 가족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가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뇌졸중 예방과 치료법' 공개건강강좌



지난 5월 27일(목) 오후2시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향설교육관에서 뇌졸중 예방 공개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시민 및 환자, 보호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뇌신경 센터

장 정재훈 교수는 “뇌졸중은 올바른 지식을 갖추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환”으로 “뇌혈관에 손상을 주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이 주원인이므로 이러한 질환의 유무를 건강검진을 통해 확인하고, 규칙적으로 관리한다면 예방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뇌졸중이 발생하거나 뇌혈관이 막혔다면 응급처치와 치료가 중요, 초기 뇌졸중 증상들에 대한 설명과 대응 법에 대해 설명했다.

제2회 감염관리·QI 아카데미 실시



순천향구미병원 감염관리실과 의료질관리실에서는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2주간, 제2회 감염관리·QI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각 파트에서 활동 중인 감염관리 실무위원과 QI 실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원내 강사진로 구성되어 임상질지표의 개념과 활용, 의료기관 인증제의 이해, 감염관리를 위한 격리의 수행, 환경감염관리 등의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됐으며, 교육을 마친 54명의 실무자에게는 수료증이 전달됐으며 각 파트별 전달 교육 실시로 환자에게 업그레이드 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다.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부인암 수술, 협진체제 구축



차의과학대학교부속 구미차병원은 산부인과 각종 부인암 및 종양 수술 시 서울강남차병원 부인암센터와 협진 체제를 구

축하여 부인암 전문의가 환자를 찾아오는 수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 환자에게 큰 각광을 받고 있다. 구미차병원 산부인과는 지역의 부인암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편리한 수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올 4월부터 서울강남차병원 부인암 센터와 협진 체제를 구축하여, 부인암 수술시 강남차병원 부인암 전문의가 구미차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수술 및 치료를 하도록 함으로서,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5월 가정의 달 행사 공개강좌, 자선 바자회 등 다채로운 행사 마련

구미차병원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지역주민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가정의 달맞이 건강공개강좌, 불우 이웃돕기 자선 바자회, 음악회, 사랑의 헌혈”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5월 11일 음악회를 시작으로 14일 불우 이웃돕기 자선 바자회, 19일 가정의 달맞이 건강공개강좌, 25일에는 당뇨병 건강강좌, 28일 사랑의 헌혈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건강공개강좌에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정형외과 김병국 교수의 “건강한 삶을 위한 관절염 이야기”와 소아청소년과 최희정 교수의 “소아청소년에서 나타나는 흉통과 실신”, 신경정신과 성형모 교수의 “행복을 훔쳐가는 우울증 이야기”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했다.

개원 10주년 기념행사 가져



지난 5월 12일 구미차병원 개원 10주년 기념행사를 가지고 고품격 의료서비스로 새로운 약진, 아름다운 도전 원년의 해로 다짐했다.

병원장의 기념사로 시작된 10주년 기념행사는 우수교직원, 우수부서 표창과 함께 137명의 10년 장기근속자 표창이 있었다. 2000년 5월 12일 차의과학대학교부속 구미차병원으로 설립 인가를 받아, 경북 중서·북부 지역에서 최초의 대학병

원으로 지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시작한 후, 10년에 걸쳐 지역민과 함께 건강 지킴이로 역할을 다하여 현재 505병상의 믿음직한 대형병원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지역민의 질환은 구미차병원에서 진료를 책임진다는 확고한 의지로 차병원그룹 의료진과 협진체제를 구축하여, 서울의 암 전문 의료진이 구미로 내려와 수술을 하는 시스템을 지난 4월부터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역민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정맥류 2,000례 돌파

구미차병원 흉부외과 김성완 교수팀은 새로운 치료법을 도입하여 하지정맥류의 수술 치료만 2,000례 돌파함으로써 노출이 필요한 계절에 즈음하여 지역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김성완 교수는 “초기에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으면 좋지만, 행여 증상이 진행되었어도,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정맥내 레이저요법이나 수술요법으로 치료를 한다. 수술도 최소 부위만 절개를 하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통증도 적으며, 입원은 하루만 하면 퇴원이 가능하므로 일상생활에 부담이 없다.”라고 했다.

개원의와 함께하는 제5회 내과 연수강좌 실시



구미차병원 내과에서는 지난 6월 14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7층 강당에서 지역 병의원 개원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제5회 개원의를 위한 내과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정재진 의료기획실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강좌는 구미시 및 북부지역 개원의 50여 명 참석한 가운데 먼저 △임상에서 흔히 접하는 간기능 이상(소화기내과 김국현 교수), △급성 복증시의 초음파 검사(영상의학과 김종열 교수), △임신시의 고혈압 치료(순환기내과 이주환 교수), △당뇨병의 최신 치료(내분비내과 이지은 교수), △부종에 대한 진단적 접근(신장내과 조지형 교수)에 대하여 발표했다.

구미 강남병원

관절 및 척추전문병원 진료개시



강남병원은 우수한 의료진과 첨단 의료장비인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PACS(의료영상전달시스템)을 도입해 관절 및 척추 전문병원으로 진료를 시작하였다.

환자 중심의 쾌적하고 편리한 병원시설과 시스템으로 무릎 및 엉덩이·어깨·팔꿈치관절 및 척추에 대해 전문적인 진료를 실시하며, 관절경 검사 및 수술, 디스크 현미경수술, 추체성형술 등 앞서가는 수술을 실시하여 병원을 찾은 고객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키로 했으며, 지역에서 관절 및 척추전문병원으로서 늘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며, 관절과 척추가 건강해지도록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 항상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하였다.

문경제일병원

제7회 사랑의 바자회 “1004들의 기도”

지난 5월 13일(목) 문경제일병원에서는 임직원을 비롯한 20여 명의 간호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문경지역민들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 바자회는 1년 동안 준비한 D.I.Y와 십자수 작품 및 옷, 음식, 재활용품, 후원물품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그 수익금은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자원봉사센터, 보건진료소 등을 통해 불우한 이웃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로 연결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문경시보건소장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의 참여와 후원이 있었고, 환자 및 보호자들의 많은 참여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훈훈한 감동으로 와 닿았다.





경.주.시.의.사.회

우리 고장 경주는 _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거대한 노천박물관이라 불릴 정도로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안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만한 문화와 관광도시로서의 가치가 있다. 1995년 행정구역 개편 때 경주군을 통합하여 도농 복합 형태의 시를 이루었으며, 면적은 1,323.92km² 인구는 약 269,300명, 행정구역은 4읍 8면 11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주는 위치상 제2의 도시 부산, 공업도시 울산, 포항, 대구 등과 근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유산의 보고로서 세계적인 역사문화 도시, 동해의 청정해역과 해안선의 수려한 자연경관 등 최적의 해양관광 휴양도시, 천혜의 자연환경과 농·축·수산업이 골고루 발달된 도·농 복합도시로서 역사문화 도시 조성과 3대국책사업의 추진으로 역사문화 관광도시는 물론 미래를 열어가는 첨단과학 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다.

경주시 의사회 소개 _

1) 연혁 및 의료기관 현황

1952년에 경주시의사회를 창립하여 윤기달 선생님이 10년간 초대회장으로 추대되어 기초를 쌓았고, 여러 회장을 거치면서 1986년 김도원 회장 임기에 의사회가 한층 틀이 잡혔고, 1998년 3월 변영우 회장 때 김경남 전 회

장의 도움으로 서부동에 처음으로 의사회관을 개설하고 간사도 공채하여 일대 도약을 이루었다. 이후 변영우 회장은 도의사회장으로 선출되어 활약하였고 의협회장 선거에도 출마하여 자연스럽게 경주시의사회는 보다 다양한 활동들을 담당하게 되었다. 2008년 9월에 지금의 성동동으로 의사회관을 이전하여 더욱 알찬 모습을 갖추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주시와 경주군 4개 읍과 8면이 통합되면서 경주군 회원과 합류하였고, 현재는 2개의 종합병원과 19개의 병원, 101개의 개인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수는 총 257명(개원의 119명, 근무의 135명, 휴직 3명)이다.

2)의사회 활동 및 주요사업

많은 임원으로 구성된 특정한 조직을 바탕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확대이사회와 상임이사회를 번갈아 개최하여 최근의 의료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반모임과 과별 모임 등을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동문회, 종교모임, 취미모임 등이 활성화되도록 독려하고 회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춘계야유회, 추계등반대회, 송년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송년회에는 많은 회원과 가족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고 있다.

도내 유일한 의과대학인 동국대의 학생회 행사 후원을 하고 교수, 개원의와의 친목을 위한 체육대회도 정기적으로 열고 있으며, 동국대 주최 개원의 심포지엄을 통해서도 교류를 나누고 있다. YMCA와 협조하여 가을에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를 하고 있고, 창립 7주년을 맞는 기독교의사회는 매년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연말에는 불우이웃돕기 행사로 대자원에 선물 및 생활용품, 예티샵터에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신종플루 관련 캠페인, 마약류 퇴치 캠페인 등에도 적극 참석해 경주시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보건소, 세무서, 공단 등 유관기관과 수시 모임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정리 : 홍보이사 민정기)

❑ 임원명단 : 고문 변영우·백승인·김장희, 직전회장 황병욱, 회장 이봉구, 부회장 이경섭·최길선·천종욱·김형일·조성범, 기획이사 이흥우, 학술이사 하동엽, 재무이사 임종섭, 법제이사 임승근, 보험이사 정창영, 의무이사 임시수, 환경이사 정유선, 정보이사 임지훈, 홍보이사 민정기, 정책이사 송준석·도항·마도훈·이진표·이국형·박형근, 지역이사 이복수·정영호·박경대·손형석·김승만·김중모·정흥채·곽효섭·전재홍·신현석, 감사 강준오·이광현



경주시의사회 역대회장 _

1952~1961년도 윤기달 초대회장 이후 최계영, 신조균, 오정국, 이기영, 이근영, 김용하, 이한철, 박해용 회장 등이 1~3년의 임기로 헌신하였다.

1986~1987년 김도원(김외과의원)

1988~1989년 이종성(자모원의의원)

1990~1991년 유환무(유내과의원)

1992~1993년 김봉석(김비뇨기과의원)

1994~1995년 김경남(김경남이비인후과의원)

1996~1997년 신현국(신정형외과의원)

1998~1999년 변영우(선린의원)

2000~2001년 신내철(신내철산부인과의원)

2002~2003년 백승인(백승인소아과의원)

2004~2007년 김장희(김장희산부인과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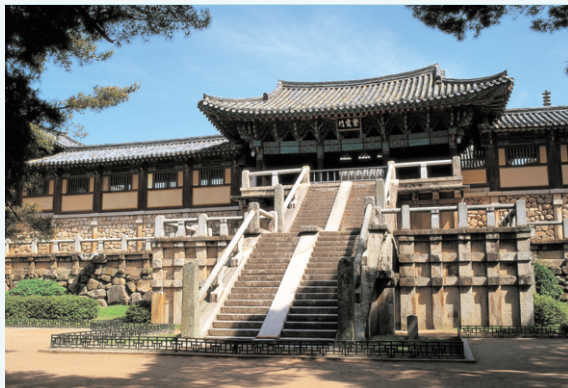
2008~2009년 황병욱(황내과의원)

2010~현재 이봉구(이피부과의원)

주요 문화축제 및 볼거리 _

1) 한국의 술과 떡 잔치

매년 4월이면 전통의 맛과 멋을 엿볼 수 있는 '술과 떡 잔치'가 열립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음식인 술과 떡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전통 먹거리를 관광 상품화 하여 시



음, 시식, 체험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 등 전통축제로 정착된 동북아시아 3개국이 참여하는 정부지정 문화관광 축제입니다.

2) 신라문화제

매년 10월이면 '신라문화제'가 3일간 열리는데, 이 행사는 삼국을 통일한 선조들의 웅혼한 의지와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축제로 다채롭고 풍성한 볼거리가 펼쳐집니다.

3) 볼거리

경주관광지를 권역별로 나누면 7곳으로 나뉘는데, 천년의 숨결 신라가 살아숨쉬는 경주 시내권(국립경주박물관과 첨성대, 황룡사터), 우리민족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불국사권(석굴암과 불국사), 휴양과 레저를 즐기는 보문관광단지권, 신라 불교예술의 집결지 남산권(나정과 포석정), 화랑의 자취를 찾아볼수 있는 서악권(태종무열왕릉, 김유신장군묘), 불교와 유교의 조화 북부권(용담정, 옥산서원), 호국의 성지 동해권(문무대왕릉, 감포해수욕장)으로 코스별로 즐기길 바랍니다.



의성 산수유 꽃길

의.성.군.의사회

의성군 소개 _

경상북도 중앙에 위치한 의성군은 중앙고속도로, 국도 5호선 및 중앙선 철도가 통과하는 내륙교통의 중심지다. 삼한시대부터 부족국가인 조문국으로 존재하다가 신라 경덕왕 16년 문소국으로 개칭 되었고 고려 태조 12년(929년) 후백제 견훤이 의성을 공격해 왔을 때 장렬히 싸우다가 전사한 성주 홍술장군의 충절을 기리고자 태조 왕건이 “義로운城” 곧 의성이라 명명하고 의성부로 승격시킨 후 현재의 지명으로 불리게 되었다. 동쪽은 청송군, 서쪽은 상주시, 남쪽은 군위군, 북쪽은 안동시와 예천군에 접하고 있다. 전체면적 1,176.6km²이며, 인구는 약 6만명으로 1읍 17면 400리이다. 군청 소재지는 의성읍 후죽리 509-2번지이다. 태백산맥에 속하는 소산맥이어서 험준한 곳은 없고, 동부는 임상이 매우 좋아 울창한 산림과 밭작물이 발달되어 사과, 고추, 특용작물재배가 성하고, 서쪽은 지형이 낮고 위천강 유역에는 평야가 형성되어 미작농업이 발달되어 질 좋은 쌀이 생산된다. 의성의 명산은 금성산과 비봉산이 자리하고 있다.

의성군의사회 연혁 _

최초로 의성군에 개원하신 분은 초대 제헌국회의원 및 2대 국회의원을 지내신 권병로(1903년생)회원이며, 1933년부터 1986년 다인면에 신생의원을 개원하셨다. 그 다음 평양의전을 나오신 송오달(1918년생)회원께서 1945년 7월

봉양면에 제남의원으로 개원하여 1967년 5월 제남병원으로 증축하였다. 1956년 12월에 권순덕(1925년생)회원께서 안계면에 삼생의원을 개원했으며, 1958년 11월에 이종주(1915년생)회원께서 의성읍에 공생의원을 개원하여 1977년 8월에 공생병원으로 증축하였다. 1959년 3월 정운학(1927년생)회원께서 안계면에 동산의원을 개원하였고, 1965년 9월에는 이우석(1928년생)회원 및 김정병(1927년생)회원께서 의성읍에 후광의원을, 탑리에 삼호의원을 각각 개원하였다. 1966년에 서근수(1933년생)회원께서 의성읍에 소화의원을 개원하였다. 현재 의성군내 병의원으로는 의성읍에 공생병원(김선영), 의성종합요양병원(이상봉), 의성효도요양병원(김희경), 합동외과의원(우상



근, 김일환내과의원(김일환), 의성경북의원(이봉우), 한길성내과의원(한길성), 가톨릭연합정형외과의원(이정훈), 서울중앙안과의원(석환주), 진연합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의원(김창우), 의성신통의원(송동현)이 있으며, 탐리 및 봉양면에 탐리성심병원, 제남병원(송선대), 한사랑의원(한성탁), 제일외과의원(박두현), 대신의원(이상호), 안계 및 다인면에 영남제일병원(김인기), 성제요양병원(이창

익), 안계병원, 동산연합의원(정능수, 이국희), 경북외과의원(이재흠), 삼성연합의원(권순호), 권의원(권영만), 서울마취통증의학과의원(이건중), 안계서울의원(김영진)이 있다. 총회원수는 개원의 19명, 근무9명, 공보의 20명, 휴직 2명이다.

주요사업

의사회 모임은 연초 및 연말에 총회를 개최하고 분기별로 부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고, 전반기에 회원 친목도모 골프대회와 후반기 산행을 한다. 안계다인 지구는 매년 번갈아 가며 의·약사회 주최로 모임을 가져서 의약분업에 따른 문제점과 시정사항을 조율하고 상호협조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위지사 및 지역 유관 단체와 간담회를 가지고 업무협조 및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지역사업으로 관내 저소득자 및 독거노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몇몇 회원은 개별적으로 요양시설 및 종교단체 보호시설로 년 2회 무료검진봉사 및 정기적인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정리 : 회장 이재흠)

의성군의사회 역대회장

- 초대 이종주(공생병원)
- 2대 오연수(의성의원)
- 3대 이우석(후광의원)
- 4대 서근수(소화의원)
- 5대 송오달(제남병원, 평양의전) 1972~1993년
- 6대 정능수(동산연합의원, 경북의대) 1993~1999년
- 7대 정종표(공생병원, 경북의대) 1999~1999년
- 8대 김일환(김일환내과의원, 경북의대) 1999~2000년
- 9대 김선영(공생병원, 순천향의대) 2000~2001년
- 10대 김태훈(김태훈정형외과의원, 영남의대) 2002~2003년
- 11대 이봉우(경북의원, 경북의대) 2004~2005년
- 12대 한성탁(한사랑의원, 인제의대) 2006~2007년
- 13대 이건중(서울마취통증의학과의원, 중앙의대) 2008~2009년
- 14대 이재흠(경북외과의원, 경북의대) 2010~현재

임원명단 : 회장 이재흠, 부회장 권영만, 총무 권순호, 감사 한성탁

가볼만한 곳

1) 고운사(孤雲寺)

신라 신문왕(681) 시대에 의상조사가 창건, 그 후 여지·여사스님이 최치원과 함께 중건하였으며, 임진왜란때 사명대사가 승군의 전방기지로 식량비축 및 승병의 뒷바라지를 한 곳이다. 현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 16교구 본사로서 60여개의 말사를 관장하며 국가 및 지방지정 문화재와 27동의 건물이 유존하는 유서 깊은 대사찰이다.

2) 빙계계곡

경북 8승의 하나로 얼음구멍과 바람구멍이 있어 빙산이라 하며, 그 산을 감돌아 흐르는 내를 빙계라 하고, 동네를 빙계리라 부른다.삼복 때 시원한 바람이 나오며 얼음이 얼고, 염동 설한엔 더운 김이 무럭무럭 솟아나는 신비의 계곡으로 빙계(氷溪) 3리 서원(書院) 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3) 의성 제오리의 공룡발자국 화석(義城 提梧里的 恐龍발자국 化石)

천연기념물 제37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백악기 중생대에 생성된 것으로 1973년도 의성 탐리에서 처음으로 공룡의 골격화석

이 발견되었고, 다시 1982년에 공룡의 발자국화석이 발견되었다. 이는 세계 최대의 공룡으로서 몸무게 120톤, 길이 40m, 높이 20m의 거대한 울트라 사우루스로 밝혀져 세계 학회에 보고됨으로써 국내외로 널리 알려졌다.

의성특산물

의성마늘, 태양초고추, 의성옥사과, 의성황토쌀, 의로운쌀, 의성포도, 의성자두, 의성토종홍화, 의성딸기, 작약

축제, 이벤트

산수유 축제, 연날리기 대회, 가을빛고운 축제, 왜가리 축제

주변음식점

의성마늘목장(824-9292), 봉양한우마실직영식당(832-1999), 남선옥(834-2455), 서원한정식(834-0054), 다인황토메기(861-8975), 경동숯불갈비(832-9680), 경북식육식당(834-2195),

의쟁투 10년, 그날의 함성을 되새기며...



변 영 우 원장
선린의원(경주)

의약분업 10년, 의권투쟁 10년, 이 기간은 대한 의사협회 100년사에 가장 중대한 시기이며, 이 기간을 제외하고 의협 100년사를 이야기 할 수 없다. 경상북도 의사회원들도 의권투쟁의 도도한 흐름에 당당하게 참여하여 의료계 역사 창조에 기여하였다. 오늘 의권투쟁 10년을 맞이하여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의권쟁취투쟁 10년의 역사, 특히 경상북도 의사회 의권투쟁사를 되새기며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필을 들었다.

의사 수난의 10년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 의사들은 의약분업을 실패한 의료정책으로 간주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후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10년 동안 실시되어온 의약분업은 아직도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약사들의 임의진료에 의한 무분별한 조제 및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진료비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의료는 왜곡되고, 소형 병 · 의원은 더욱 더 영세화 되어 가고 있어 이런 의약분업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정부는 이제 의약분업은 정착단계에 들어갔으며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대부분의 의

사들은 의약분업을 몰아부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의약분업이 확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었고 2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것이 거의 없이 예전 그대로이다.

의약분업은 피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물음에 선뜻 '예' 라고 답할 수는 없다. 당시 시대 상황은 경제적 발전으로 국민의 의식과 생활이 급격히 개선되었고, 사회주의 경향을 가진 김대중 정권이 이념에 치우친 정책을 양산하였다. 또한 IMF라는 경제위기,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던 폐쇄(?)된 의사사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의사 배출 등이 의약분업이라는 잘못된 정책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 동안 의사들은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시작 되었음에도 변화의 물결을 느끼지 못한 체 진료실 문을 잠그고 밖을 내다보지 않았다. 아니 볼 필요가 없었던 시절이었던지 모른다. 폐쇄된 의사사회의 변화는 필연적(?)인데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안일하게 지내다가 느닷없이, 모든 것을 휘몰아가는 의약분업이라는 '쯔나미' 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잘못되고 실패한 의약분업이었지만 이것에 대항하여 의권투쟁의 불꽃이 일어났고, 이를 통하여 우리 의사들은 새롭게 태어났다. 자신만의 울타리 속에서 안주하던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의권투쟁을 통하여 자신의 현실을 감지하고 스스로를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의권투쟁 10년 동안 의사들은 많은 것을 깨우쳤고, 아픈 만큼 성숙되었다. 의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야 할 것인가? 생존을 위한 명제를 떠올리게 되었다. 내가 아닌 우리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은 의권투쟁의 큰 수확이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능력이 생겼다. 마치 태풍이 주는 교훈을 얻은 것과 같다. 즉 태풍이 오면 심한 풍수해를 입는다. 그러나 저수지에 물을 가득 담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풍성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경북의사회의 의권쟁취 투쟁은 신은식 도회장님 임기 중에 시작되었다. 서울 장충체육관(1999. 11. 30)에서 개최되었던 “올바른 의약분업 쟁취를 위한 쉼기대회”는 최초의 단체행동이였다. 그날 경북의사회에서는 30여대의 버스에 922명의 회원이 참여하였다. 의사들이 새벽에 함께 버스를 타고 투쟁에 참여하기는 난생 처음이었을 것이다.

2차 집회는 여의도 문화마당(2000. 2. 17)에서 “의권 쟁취 및 의약분업 정부안 결사반대 결의대회”로서 의료계사상 초유의 전국 의사 옥외 집회 및 1일 휴진 투쟁이였다. 당시 4만여 명의 회원(경북 1595명, 버스 45대)이 참여하였고, 그 당시 신은식 회장님과 김재정 의협 회장님을 비롯한 10여분의 시도회장님께서 삭발을 감행하여 회원들의 투쟁심에 불을 붙였다.

경북의사회 의권투쟁은 새천년을 열던 1999년에 시작하여 2000년도 한 해만 5차에 걸친 휴진 폐업(총 31일) 투쟁과 4차에 걸친 전국 의사 투쟁 결의 대회가 개최되었다. 경북의사회에서도 3차에 걸친 자체 결의대회로 투쟁의 피크를 이루었으며, 그 후 2005년까지 경북의사회는 의협의 투쟁 계획과 발맞추어 서울에서 개

최되는 대규모 장외 집회(총 8회)를 위해 매회 1000여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였다. 경북의사회원들은 실패한 의약분업 반대와 빈사상태의 의료계를 살리기 위한 투쟁을 위하여 힘들지만 열심히 새벽 버스를 탔었다.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1999년 12월 21일 발족하였고, 김재정 부회장이 투쟁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경북의사회 의쟁투위원회는 1999년 12월 29일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 이원기·변영우 회원, 투쟁국장에 김우태·오진석 회원, 조직국장에 변영우·김병곤 회원, 홍보국장에 정만진·안길영 회원이 이어말으며 헌신적으로 투쟁에 앞장섰다.

의쟁투 중앙위원으로 선임된 이원기·변영우·문신길·송재영·김우태·오진석 위원들은 서울을 오가며 고생을 하였고 특히 송재영 위원은 서울에서 단식에 동참하여 대정부 투쟁을 이끌었다. 시군별로 의쟁투 위원들의 면모를 보면 전민·신창식·정근재·안길영·이경엽·권세홍·김재왕·김옥배·김동욱·우대영·이동수·이철·김홍태·권규돈·유성호·최정규·김교준·김선영·김일환·정철·임대기·이종호·박성훈·서창수·박해동·백두현·최재진·방종경·김명원·최영근·박창근·이원석·차광국·최예환·전우진·임상진·홍순기 회원으로 도내 곳곳에서 진료도 제쳐놓고 대구까지 먼 길을 달려와 열심히 토론하고 투쟁하던 헌신적인 모습이 지금도 선명히 떠오른다. 동대구 터미널 입구와 가깝다는 이유로 선택된 효목네거리에 위치한 함지박식당과 의사회관 3층 강당이 주 모임장소였다. 밤늦게까지 끝없는 토론이 이어졌고, 토론이 끝나면 근처 식당에서 소주잔을 앞에 놓고 한탄하던 모습들이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그때는 우리 모두는 동지였고 형제였었다.

의쟁투 위원들은 대표자로서 수고가 많았지만 정말 고마운 일은 일반 회원들이 의협의 결정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투쟁에 참여 해 준 것이었다. 그래서 의사들의 의권 투쟁은 더욱 더 빛이 나고 속력을 가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협력이 의료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경북의사회는 자체 결의대회도 여러 번 가졌다. 포항 귀빈예식장(1999. 11. 23), 경주 현대호텔(2000. 7. 23), 경주 황성공원(2000. 10. 6), 경북의대 학생회관(2003. 12. 20)등에서 많은 회원들이 참가하여 투쟁을 계속했으며, 이외에도 시군별 · 권역별 대정부 구탄대회 및 비상총회를 개최하여 실패한 의약분업 철폐를 촉구했다.

대정부 투쟁을 위한 전국 집회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경상북도의회 의쟁투 성금은 많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 4차에 걸쳐 6억2천만 원이 모아졌으며, 2002년 신상진회장 임기 중 ‘국민건강수호투쟁성금’ 2억7천5백만 원 등을 포함하여 투쟁기간 동안 모아진 투쟁기금 총액은 약 9억여 원이니 되었다. 경주시의사회의 백승인 · 김장희 · 이봉구 · 천중욱 · 도황 · 마도훈 · 황병욱 · 최길선 · 강준기 · 조현숙 · 서보완 · 이홍우 · 류효충 · 노영균 · 김진오 회원은 거금의 특별 성금을 따로 모아 의협에 기탁하여 전국적인 투쟁성금 모금에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이외에도 경북의사회 의권투쟁은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 철폐를 위한 대국민 1000만명 서명운동’ (126,802명 반응) 을 전개하는 등 모든 회원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적극적인 투쟁에 앞장 서 주었으며, 그 공로로 2001년 4월 의협제56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최우수 모범지부상을 수상했다.

개인적으로도 지나간 의쟁투 10년은 내 인생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의쟁투 기간 동안 경북의사회 회장으로 재임하다보니 투쟁과 진료를 병행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투쟁에 전념하기 위하여 잠시 휴진(2002. 4. 11 휴진) 한다는 것이 벌써 횡수로 9년이나 지났다. 이제 진료의사가 되기는 힘들게 되었다. 의권투쟁에 관련 된 사건으로 다양한 제재와 재판도 받았다. 대법원 까지 가는 재판을 세 번이나 하였고, 그 결과 한번은 무죄였으나 두 번은 벌금형을 받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투쟁에 앞장선다고 세무조사도 받고, 보건소 행정제제도 받았다. 나의 순조로운(?) 의사 인생은 의약분업으로 야기 된 의권투쟁으로 많이 변했다.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 “이것도 다 나의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고, 부끄러움도 후회도 없다.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해도 그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걱정은 된다. 의사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할까? 집사람과 고민을 해봐야겠다.

지난 의권투쟁 10년을 뒤 돌아보면서 의사들의 순수함과 열정도 보았지만 또한 한계도 느꼈다. 의사들이 옳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옳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보았다.

지도자들의 자질들이 어떻게 투쟁에 영향을 미치는 가도 보았다. 한 나라의 정책이 한번 결정되고 시행되면 다시 고치기가 참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모든 직능 단체들과 국민들의 이해가 걸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법을 만들기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고, 주위에 정치적인 인적 인프라 구축도 꼭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았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의권투쟁의 기록은 우리의 귀중한 경험적 자산이고 향후를 위한 투쟁의 교과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정리하고 기록해야 한다. 경북의사회 투쟁백서도 꼭 필요하다. 기록만이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고 어리석은 실패의 전철을 피할 수가 있다. 의권투쟁으로 의사들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젊은 의사들이 앞으로 의사로서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깊이 있는 연구를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권투쟁은 절대 실패하지 않았고 앞날은 매우 밝을 것이다.



경북의사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일지

| 1999 |

- 11. 24 의약분업 약사법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통과
- 11. 30 서울 장충체육관 “올바른 의약분업쟁취를 위한 궐기대회” 3만여명 참가, 대회 후 장충체육관에서 종묘까지 가두행진, 경북의사회 922명 참가
- 12. 7 의약분업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2. 21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발족, 김재정 의권쟁취 투쟁위원장 선출
- 12. 29 경북의사회 의권쟁취 투쟁위원회 구성, 시군 의사회장들이 주로 의쟁투 위원이 되었으며 헌신적인 희생으로 운영해 왔음
 - ▷경상북도 의쟁투 위원장 : 이원기 · 변영우
 - ▷의쟁투 조직 : 투쟁국장 김우태 · 오진석, 조직국장 변영우 · 김병곤, 홍보국장 정만진 · 안길영, 의쟁투 중앙위원 이원기 · 변영우 · 문신길 · 송재영 · 오진석
 - ▷시군별 의쟁투 위원 명단
 - 이원기 · 전민 · 문신길(포항시), 변영우 · 신창식(경주시), 정근재 · 안길영 · 이경엽(김천시), 권세홍 · 김재왕(안동시), 김옥배 · 김동욱(구미시), 우대영 · 이용수(영주시), 정만진 · 이철(영천시), 김홍태 · 권규돈(상주시), 유성호(문경시), 김우태 · 최정규(경산시), 김병곤 · 김교준(군위군), 김선영 · 김일환(의성군), 정철 · 임태기 · 이종호(청송군), 박성훈(영양군), 서창수(영덕군), 송재영, 박해동(청도군), 백두현 · 최재진(고령군), 방중경 · 김명원, 김영근(성주군), 박창근 · 이원석(칠곡군), 차광국(예천군), 최예환 · 전우진(봉화군), 임상진 · 홍순기(울진군)

| 2000 |

- 2. 17 서울 여의도 문화 광장에서 “의권쟁취 및 의약분업 정부안 결사반대 결의대회”, 의료계 사상 초유의 전국 의사 옥외 집회 및 1일 휴진투쟁, 4만여명 참가, 경북의원 1595명, 버스 40대 이상 동원, 신은식 도회장 등 10여명 식발 강행

- 3. 29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휴진투쟁에 이어 관철되지 않을시 무기한 휴진 결의, 김대중 대통령 면담(김두원 의협회장 직무대행, 나석찬 병협회장, 김재정 의쟁투 위원장 참석)후, 무기한 투쟁 철회, 당시 경북의사회는 대의원 총회 중이었으며, 총회 마지막 부분에 휴진 철회 한다는 대한의사협회장 명의의 공문 받음, 파업 투쟁을 철저히 해왔는데 회원들 당황하고 크게 실망. 이 일로 인해 다수 회원들로부터 집행부는 신뢰를 잃는 단초가 되었다. 그러나 인천 · 울산광역시 의사회, 성남 시 의사회는 예정대로 3월 30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강행함
- 4. 4 4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첫 휴진 투쟁에 들어감. 경북의사회는 첫 휴진 투쟁, 4월 6일부터 8일간 전공 의들도 파업 투쟁에 동참
- 5. 8 신상진 의쟁투 위원장이 제3기 의쟁투 위원장에 선출,
- 5. 28 서초구 구민회관강당에서 “전국 의사 결의대회 및 대표자 결의대회” 개최
경북의사회에서는 의사회회장단과 임원들 참석
- 6. 4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잘못된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결의대회” 개최, 경북의쟁투 변영우 · 안길용 · 김우태 · 문신길 위원이 식발 투쟁
- 6. 15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북한 주석과 역사적 남북정상 회담
- 6. 20 6월 20일에서 25일까지 제2차 의료계 폐업 투쟁 실시, 개원의 · 봉직의 · 전공의 전 직역과 의대생까지 동참하여 파업투쟁 강행, 전국 의사들이 폐업 투쟁률이 전국적으로 95.8% 참여하여 일치단결 된 모습 보임. 전국적으로 폐업을 주도한 시도회장을 수배령이 내려 급히 피신함. 대구시 의사회 김광훈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구속
- 6. 24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여야 영수회담 요청(의료계 폐업투쟁에 관해서), 오후 회담 개최 됨, 영수회담 내용으로 전국의원 투표 실시, 폐업 해제 찬성 51.9%, 반대 47.5%로 폐업해제 결정
- 6. 26 전국 의료기관 폐업 철회(폐업7일째)

- 7. 1 보건복지부 잘못된 의약분업 제도 강행(7월 말까지 계도기간 설정, 실제 적용은 8월 1일부터)
- 7. 4 김재정회장 검찰에 구속, 신상진·사승언·박현승·배창환 구인장 발부, 지명수배
- 7. 9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제대로 된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 대표자 결의대회”
- 7. 12 검찰, 대한의사협회 및 의쟁투 사무실 기습 압수수색
- 7. 23 과천 정부종합청사(경인지역회원)에서 약사법 개악 규탄 및 의협회장 석방 촉구 결의대회
- 8. 1 잘못 된 의약분업 강행
- 8. 5 8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제3차 전면 재 폐업 투쟁 돌입, 경북은 일찍 파업에 돌입. 몇 개의 광역시도에서는 8월 11일부터 파업 시작
- 8. 17 신상진 의쟁투 위원장 수배 43일 만에 체포 구속 전공의 파업 투쟁과 함께 전국대의대생 파업 투쟁 함께 시작
- 8. 30 전국대의대교수회의(카톨릭의대 마리아 홀 및 교정) 9월 15일부터 모든 진료에서 철수, 파업 할 것임을 선언
- 8. 31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국민건강권 수호 의사 학생 대동 한마당 및 의료개혁 원년 선포식” 개최, 태풍 ‘프라피룬’으로 강한 바람과 굵은 빗줄기 속에서 우의를 입고 물웅덩이에 앉아서 일사분란하게 개최. 전국 4만 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성공적인 대회가 되었고 많은 회원들의 기억 속에 남음. 경북에서는 1058명이 참가
- 9. 15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참의로 관철을 위한 휴진투쟁 제4차 파업투쟁 실시
의대 교수들 모든 진료에서 철수. 폐업 참여율 저조.
- 10. 6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제5차 휴진 투쟁, 개원의·봉직의·의대교수·전임의·전공의·의대생 전 직역이 참여, 95.2% 폐업 동참, 중소병원·대학병원 외래진료 전면 중단
- 10. 7 영남권역 5개 광역시도 의사회 임원 연석회의(경주교오롱호텔)

| 2001 |

- (2001년도는 대한의사협회는 투쟁에 실망한 회원들의 압력으로 김재정회장 사퇴와 회장 직선제 정관개정, 직선회장 선출 등 복잡한 의협내부 상황으로 투쟁다운 대정부 투쟁을 이끌어내지 못한 한 해였다. 특히 의사들을 옥죄는 악법을 양산, 투쟁으로 얻은 과실을 모두 빼앗겨 진료권 훼손과 의료기관의 경영악화 심화)
- 2. 22 국회보건복지위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그 동안 투쟁으로 얻은 과실들을 정부에 의해 하나씩 빼앗아감. 건강보험재정 파탄 전망 발표(2000년 투쟁으로 한 해 동

- 안 의보수가 28.78% 실질적 수가 인상 된 결과)
- 2. 26 고등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에 실린 ‘집단이기주의는 공동체 붕괴의 중요한 원인이다’라며 의사들의 꺾기하는 사진을 실어 의사들을 중상모략, 경북의사회에서 국건투 긴급회의에 문제 제기, 교과서 출판금지 가처분신청, 초상권 침해로 인한 명예훼손 등 법적대응
- 3. 21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김원길 민주당 의원 임명
의보수가 12.31% 인하(이태복장관 2.9% 인하, 김성호장관 2.1% 인하)
- 4. 19 전국지사대표자대회(의협회관, 참석자는 변영우·정만진·백승인·천종욱·신창식·허석·권세홍·김옥배·이영희·정명근·최정규·이덕순)
- 6. 3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실패한 의약분업 규탄 전국지사 결의대회” 개최(경북은 891명이 27대의 버스로 참가함), 변영우 회장 연대사
- 6. 14 임시대의원 총회, 김재정회장 사퇴
- 6. 27 시군의사회 단위 대정부 규탄 결의대회, 개악 의료법과 국민건강 보험 재정 안정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의료계를 통제하려 함. 의협 비대위는 재정안정화 대책 ‘7.1 정부고시’를 전면 거부기로 결정하고 본인 부담금 3000원을 받지 않고 종전과 같이 2200원을 적용하기로 함. 그리고 단축 진료, 집단휴가, 주 5일 근무 투쟁을 실시하기로 함
- 7. 11 유성희 전 대한의사협회장, 평양방문 중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사망
- 7. 28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의협 회장의 직선제 선출 정관개정안 통과 됨(투표 결과 찬성 136, 반대 62로 통과)
- 7. 31 의료계 집단 파업주도 협의로 법원은 김재정, 신상진, 한광수 회장의 6명에게 8개월부터 1년까지 징역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 8. 14 주사제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개정 약사법 공표
- 8. 18 8월 14일 비상대책위원회 결의사항으로 8월 18일 하루 휴진하고, 각시군구 의사회별 임시총회, 반별모임, 야외모임 등의 회합을 갖도록 결정. 휴진 참여 50% 미만 저조
- 9. 8 전국지사 대표자대회(충남 천안, 변영우·이석균·정만진·송재영·허석·박경욱·석제홍·서석구·최정규·이용우 참석)
- 10. 19 대한의사협회장 보궐 선거에서 신상진 전 의쟁투 위원장이 첫 직선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당선(투표율 61%, 유효 투표 75% 득표)

- 11. 8 전국 의사대표자 결의대회, 성모강남병원 마리아 홀
- 12. 22 12월 18일 보건복지위를 통과 한 개악 의료법 저지와 실패한 의약분업철폐를 촉구하는 경북의사회 시군별 비상 총회가 일제히 개최

| 2002 |

- 1. 27 장충체육관에서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 철폐와 국민건강수호 전국 의사 결의대회” 개최, 경북에서는 595명이 버스 17대를 동원, 참가함. 변영우 회장 연대사
- 1. 31 ‘국민건강수호 투쟁위원회(국건투) 구성, 신상진 직선 회장 체제 투쟁체 만들.
- 4. 6 영남권 권역, 5개 광역시도 의료정책 협의회 개최(경주 코오롱호텔)
- 4. 17 신상진 의협회장 체제에서 첫 의료계 총파업 투쟁 강행 준비 중 정부의 집요한 협박과 탄압 등의 방해공작으로 일부의 시도회장의 투쟁 의지 결여와 또 중국 민항기의 김해공항 인근에서 추락하는 사태 등으로 파업 투쟁 취소, 이로 인해 회원들의 실망으로 제54차 정기대의원 총회(2002. 4. 27)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는 등, 신상진 회장 체제의 투쟁 신뢰도가 떨어짐
- 9. 14 영남권(부산, 제주) 의사 결의대회(부산시청 앞 광장, 변영우·이원기·정만진·문신길·김병곤 참석, 서면대로에서 가두행진 시위)
- 10. 27 “실패한 의약분업 철폐를 위한 전국 의사 결의대회” 과 천 정부종합청사앞, 본회에서는 1037명이 전세버스 22대에 타고 참가함.
- 11. 1 의약분업 철폐를 위한 대국민 1000만명 서명운동 전개하여 본회 948개 병원에서 126,802명분의 서명을 받아 의협에 제출 함. 본회가 시도 중 가장 많은 서명 받음.

| 2003 |

- 10. 11 경기도 오산 롯데 연수원에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의사대표자 결의대회” 개최 1박 2일간, 8만 의사의 생존, 자유, 희망을 슬로건으로 집중 논의.
- 12. 20 “전국 의사 결의대회 및 대구 경북 결의대회”, 경북의대 학생회관, 대구·경북회원 1,200여명 의약분업 재평가와 건강보험공단 즉각 해체를 촉구

| 2004 |

- 1. 31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의사대표자회의, 2월 22일 전국 의사 결의대회준비, 전회원과 가족이 모두 동참하기로 결의
- 2. 22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전국 의사 결의대회 개최, 현행 의약분업에 대한 의료계의 분명한 입장과 국가 통제식 사회주의 의료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결연한 의지 천명
- 11. 25 의협회관에서 16개 시도 회장단들이 건강보험수가 현실화를 위한 3일간 농성에 들어감(의협회관). 정부의 수가 현실화와 의협의 분발을 촉구하고 향후 대응 방안 에 대해 집중 논의

| 2005 |

- 6. 17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주최 ‘약대학제 개편 6년제 공청회’를 회원들의 실력저지로 무산 시킴
- 7. 5 과천 정부청사 내 국사편찬위원회, 약대학제 개편저지 교육부 규탄 대회 참석, 교육부가 약대학제 개편 방안 공청회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개최 기도를 실력저지
- 7. 16 서울 서초구민회관,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결의대회를 갖고 약대 6년제 저지 및 약사 불법진료 처단을 위한 강력한 투쟁 전개, 공청회 실력저지 시도, (본회는 변영우 회장, 이원기 의장, 시군 의사 회장 등 23명 참석)

※ 경북의사회는 자체의 의권투쟁을 자세하게 정리한 기록물이나 백서가 없다. 위에서 정리한 자료는 본회 정기대의원총회 소책자(2001~2006)와 경북의사회지(25호~30호), 대한의사협회와 각시도 의사회에서 발행한 의쟁투 기록과 백서 등을 참고 하였음을 알린다.

2010. 6. 28.



2010년 6.2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경험하면서



최 중 근 원장(탐정형외과의원, 구미)

2010년 6.2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 도의원에 출마 하시게 되었는데 우선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능력이 되지 않은 저에게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경상북도 의사회장님을 비롯하여 고문님, 의사 회원님, 경상북도 의사회보 관계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경상북도 도의원 구미시 제5선거구에 예비후보로 출마한 최중근입니다. 순천향대학교 및 동대학 박사를 수료 하였으며, 관절경 전임의 및 서울 및 구미 순천향대학병원 정형외과 부교수까지 역임하였고, 현재 경북 구미시 옥계동에 탐정형외과 연합의원을 개원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개업가가 어려우신데 진료를 뒤로하고 출마 하시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의사가 진료를 접고 선거에 입후보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교수 생활과 개원의 생활등 전형적인 의사의 생활로 일관 해 왔고, 새로운 길로 가야하는 두려움등, 결정하기 까지는 잠도 이루지 못하고, 여러 번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정치는 민주화, 이념투쟁 등이 주요 이슈였다면, 요즘 정치는 6.2 지방 선거에서 나타난 선거공약에서 볼 수 있듯이 무료급식, 무료접종,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립등등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가 증가되고, 정치인들 역시 주민 밀착정치로 의료복지나 사

회복지정책이 정치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는 의료보호환자, 의료보험환자, 장애인, 새터민, 외국인 근로자, 이주여성등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과 매일 이야기하고, 애환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원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출신 정치가 즉, 의사들이 복지 전문가인 동시에 지역민 애환을 느낄 수 있는 정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 가을 전세계를 강타한 신종플루를 보면서 의료 전문가인 의사출신의 도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경상북도 의사회의 의학적 도움을 받아 보건소 및 경상북도 공무원과 함께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경상북도에서 발생하는 구제역이나 신종플루를 비롯하여 각종 전염병에 대해 질병 방역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다른 지역 보다 경상북도 도민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아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로서 이번 선거출마에서 느낀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의사들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세력화를 하지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은 막강한 핵폭탄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러나 정치에 무관심하고, 환자들의 건강회복에만 최선을 다하다보니 이런 핵폭탄이 있는지, 그것을 다루는 방법도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진료시에 환자들이 원장님, 원장님 하던 사람들이 도의원에 나간다고 하니 갑자기 변해요, 어깨에 힘을 주면서, 자기가 표가 많으니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떨어진다고.... 마치 도의원 출마예정인 저

우리 지역 의사회가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지역정치인들, 지역 시장님들, 지역 국회의원님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이것이 생활의 정치입니다, 이것이 각 지역 의사들의 정치의 시작인 것입니다.

를 자기 아랫사람 다루는 말투로 힘을 과시하더군요. 지역 해병 전우회나 체육회등의 민간 단체장들은 자기 지역에서 원하는 도의원이나 시의원에게 공천을 줘야지 안주면 다음 선거에서 안 밀어주겠노라고 내 앞에서 공천에 관련된 공천권자들에게 당당히 전화 하더라고요. 난 그때 알았습니다. 아무리 힘세고 대단한 정치인 등 공천권자들이라도 표라는 여론앞에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 알았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매일 수천 명의 환자라는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가령, 한 지역구에 개원한 의원이 100개가 있어서 의원당 50명씩 진료한다면 하루에 5000명이라는 유권자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는 핵폭탄이 될 수도 있지요. 의사들이 단결만 한다면 여론몰이에 이런 좋은 장소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지역 의사회장을 중심으로 각각 현재 운영 하는 반모임에 회신을 보내 지역민에게 정치를 잘하는 정치가가 있다면 매일 내원하는 유권자들에게 지역민들을 위해 필요한 정치인 이라고 당당하게 거론 한다면 당선운동도 낙선운동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사들이 단결하여 하루에 진료하는 수천여명의 환자에게 잘하고 잘못 한일을 당당하게 이야기 한다면 파급효과는 엄청 날걸로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들에게 마치 핵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나라당 공천에 낙선 되었으나 지역민들과 밀착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었기에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더 배우고, 더 준비하여 나가고자 본선거에는 무소속 출마를 하지 않고, 예비후보로 그쳤으나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의사 협회, 지역의사회에서 일을 잘 했느니, 못 했느니 의사 출신의 국회의원님들이 도와 주었느니, 안 도와 주었느니 따지지 말고, 의사 각 개인들이 진료 이외의 일에 얼마나 잘 했는지 우선 반성부터 하고, 이젠 지역 사회 의사회를 중심으로 각각의 의사들이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의사들만큼 깨끗한 사람을 잠재적인 범재자로 만드는 리베이트건 같은 안건을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각 지역 의사들의 표라는 눈치를 보았다면 일방적으로 통과 되는 일은 없었겠지요. 이것은 의협 및 의사회 누구 한 두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간 힘을 갖추지 못한 의사 개개인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지역의사회도 변해야 합니다. 힘이 있다고 자랑하고 과시를 해야 합니다. 의사회 정기총회나 행사에 의사회장님께서 지역 국회의원님, 시장님, 군수님, 도의원, 시의원 모두 초청 하십시오. 못 오신다면 국회의원 보좌관님, 군수, 시장 비서관님들께 안 오시면 의사회에서는 환자라는 유권자들을 하루에 수천 명씩 만나는데 앞으로 지지 할 수 없다고 정중하고, 당당하게 힘이 실린 어조로 말씀 하세요.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은 안 올수가 없습니다. 유권자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지역 안배를 무시하고, 지역민이 원하지 않는 후보에 대한 국회의원의 사천은 지역 유권자들이 표로 확실히 낙선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 의사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십시오. 가능 합니다. 다음 총선이 1년10개월 정도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잘하는 후보는 잘한다고 칭찬해 주십시오. 낙선운동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당선 운동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우리들뿐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못하는 후보들은 당연히 낙선될 수밖에 없으니깐요. 후원금을 내기 싫은 회원님들은 안내셔도 됩니다. 당선 지원만큼 확실한 후원은 없으니깐요. 각 지역 의사회장님께서 지역 국회의원, 시장, 군수님들과 언제라도 직접 통화 할 수 있는 핫라인 전화번호를 가지십시오. 지역에 유지들도 가지고 있고 수시로 직접 통화 합니다. 지역에서 유지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누구보다 막강한 지역 의사회장님들께서 핫라인이 없이 그저 진료만 한다면 누가 알아줍디까? 알아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표현상 약간은 이상 하지만 개처럼 시끄럽게 짚으십시오. 그래도 관심 안 보이시면 물어 버리십시오. 다리나 허벅지등 노출된 어느 부분이든 지... 아프면 관심을 가지게 될 것 입니다.

의사회나 지역의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처음 개업을 하면서 지역에서 벌어드린 수익은 이 지역에 조금이나마 사용 하자는 생각을 하였고, 개원시 부터 많지는 않지만 노인정, 소년소녀 가장, 각종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지역 체육회 부회장, 발전협의회 부회장, 방위협의회 회원, 구미 소방서 명예 구조대장, 구미 경실련 재정위원장등 지역에서 요청이 와서 맡아주길 바랬고, 저 역시 이 지역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역할을 맡으면서 지역사회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직을 맡아 일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의사들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젠 기부를 당당히 하시고 지역 언론에 적은 기부일지라도 신문등 언론지상에 당당히 내 보내십시오. 그리고 각 지역 의사회가 각 지역민에게 이렇게 열심히 한다

는 것을 자신있게 보여주시고 공개해 주십시오. 지역의 정치인들은 비록 자기이름만 들어가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합니다. 이젠 각 지역의 의사회장님들이 전면에서 나서서 기부도 많이 하시고 언론 플레이도 당당히 하십시오. 우리 지역 의사회가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지역정치인들, 지역 시장님들, 지역 국회의원님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이것이 생활의 정치입니다. 이것이 각 지역 의사들의 정치의 시작인 것 입니다.

끝으로 계속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지,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이나 각오는 어떻게 됩니까 ?

정치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상황이 다르고 내일의 상황 또한 다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환자를 보면서 각종 지역사회 활동과 봉사를 한다면 이번보다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후배 의사 분들께서 최종근이 더 좋은 의사, 더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지켜 봐주시고, 지도 편달 해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제가 부족하여 공천에 낙천 되었지만 이번선거 공천에 힘을 써주신 왕상한 전 법제 이사님, 항상 큰누님처럼 따뜻하게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여 주셨던 안명옥의원님, 신상진의원님, 안홍준의원님등 의사출신 국회의원님, 나를 아껴 주시고 힘을 써주신 국회의원님들(의사와 무관하여 거명 안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듭), 대한의사협회 회장님, 경상북도의사회 회장님, 구미시의사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경상북도의사회원 여러분들께 이 글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정리 : 김종영 위원)

※ 이 글은 구미 제5선거구 도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의사 최종근의 사견입니다. 비록 선후배 의사님들 생각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우리고장 시원한 계곡을 찾아서...

남아공 월드컵 축구의 열기로 달구어진 올해 여름은 더욱 뜨겁다.
강렬한 스포츠에 몰입하는 것이 잠시 더위를 잊기에 좋으나, 하루 일과 후
밤늦게 이어지는 TV 시청으로 아침에 몸이 개운치가 않다.
무거워진 몸을 깨우고, 머리도 맑게 하러 주말에는 가까운 계곡을 찾아보자.

앞사귀 넓은 서어나무, 굴참나무 그늘 따라 계곡을 들어서면 마중 나온 골바람에 피부가 섬뜩하고, 화들짝 놀란 폐포도 가슴을 힘껏 밀어올린다. 몇 번 숨 거칠게 몰아쉬면 솔향기에 마취되어 머릿속이 아득하다.
호젓한 오솔길을 걷고, 개울가 너른 바위도 건너서 골골이 돌아가면 이름 없는 작은

소(沼)와 폭포도 보이고...계곡이 끝날듯한 어디쯤에선가 주저하던 발자국 몇 개 흔적만 남겨 놓고 아쉬운 발길을 되돌린다.
올라오면서 눈여겨 봐뒀던 자리가 운 좋게 비어있으면 얼른 내려가 물에 발부터 담그고 볼 일이다. 혹시 배낭에 詩集이라도 한권 있다면 풍류를 즐기는 閑良이 되어 볼텐데....



청송 옥계계곡



1. 성주 포천계곡
2. 청도 남산 산책로
3. 무흘구곡



영천 치산계곡

대구, 칠곡, 영천, 군위를 거느리는 우리고장 중심에 위치한 靈山 팔공산... 가산, 팔공산, 환성산, 초례봉으로 장장 45km에 이르는 큰 산군이다. 동화사, 은혜사, 부인사, 파계사와 유명한 갯바위를 품고있다. 치산계곡은 팔공산 북쪽 공산폭포 아래 골 깊은 계곡이다. 수도사지나 공산폭포 옆길따라 동봉으로 올라가서 건너편 수태골로 내려가거나, 왼쪽 염불암 병풍바위를 지나 신령재로 내려오면 원점회기산행도 할 수 있다.

청도 남산13곡

화양읍성 입구에서 남산골로 올라가면 체육시설근처에 840m 예쁜 계곡산책로를 조성해놓았다. 얇은막한 개울물에서는 어린애들 물놀이 장소다. 솔숲따라 계곡 끝나는 곳 '신둔사'에 들러 시원한 약수 한잔 맛보고 힘이 솟으면 남산 오르는 숲속길로 눈길이 간다. 정상에서 능선타고 화악산도 갈 수 있다.

성주 포천계곡

가야산이 남쪽으로는 해인사 홍류동계곡, 동쪽으로는 대가야 고령 상비리계곡으로 이어지는 백운동계곡을, 북쪽으로는 포천계곡을 만들어내고 있다.

성주 가천면 창천리에서 7기로 남짓 긴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상류 끝닿는 곳에 조선후기 선비였던 '응와 이원조' 선생이 만년을 보냈다는 '만귀정'이 소담하게 자리하고 있다.

그 옆에 규모는 작지만 새찬 기운으로 떨어지는 폭포수는 울창한 숲속에 가려져있어 한낮에도 차가운 기운이 감돈다. 나오는 길에 수륜면 백운동으로 가면 최근 38년 만에 개방한 가야산 '만물상-서성재' 코스로 트레킹을 할 수 있고, 성주댐으로 핸들을 돌린다면 구비구비 대가천 무흘구곡의 수려한 경관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배바위, 선바위, 사인암을 지날 때는 여러번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된다.

호젓한 오솔길을 걷고, 개울가 너른 바위도 건너서
 골골이 돌아가면 이름 없는 작은 소(沼)와 폭포도 보이고...
 계곡이 끝날듯한 어디쯤에선가 주저하던 발자국 몇 개
 흔적만 남겨 놓고 아쉬운 발길을 되돌린다.

문경 선유동계곡

가은읍 석탄박물관을 지나 대야산 용추계곡으로 들어가면 속리산에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신성한 정기가 흐른다. 수량이 풍부하고 맑은 계곡은 어디에다 자리를 잡아도 그늘아래 시원한 명당이다. 조금 아래 위치한 선유동계곡 '학천정'에 들어서면 계곡 따라 화강암 마당바위가 넓게 펼쳐진다. 예전 사대부양반들 여기서 술과 자연에 취해 도포자락 펼쳐놓고 시 한수 읊조리는 그림이 떠오른다.



청송 절골계곡

신성계곡 '방호정', 백석탄계곡, 묵계서원으로 이어지는 길안천변 경치는 어느 한 곳 작품이 아닌 곳이 없다. 수령300년된 왕버들이 만들어낸 한폭의 수채화같은 주산지 지척에 절골계곡이 있다. 계곡 초입부터 기암절벽 협곡의 원시적인 자연미에 압도 당한다. 나무계단길을 걸어보고, 흙길도 지나고, 올망졸망 작은 돌다리도 건너며 1시간가량 재미있게 걷다보면 대문다리에 다다른다. 여기서 2km 남짓 가파른길을 올라가면 주왕산 옆 가메봉이다. 청송얼음골에서 달산면 쪽으로 달리다 옥계계곡 침수정으로 들어와 계곡따라 비포장도로로 올라가면 내연산 밑을 파고 드는 하옥계곡의 생소한 비경에 오지의 적막한 고립감이 느껴진다.



포항 내연산 계곡

포항에 대표적인 사찰,보경사 경내로 들어서면 잘 정비된 계곡길을 따라 30여분정도 오르면 관음폭포, 연산폭포의 장관을 목격할 수 있다. 폭포옆 바위에 올라앉아 깊은 골짜기를 내려다 보면 오금이 저리고 등골도 오싹하다. 시간이 충분하면 내연산 향로봉에 올라 청송 주왕산을 조망할 수 있다.



취재 및 정리 : 장태영 위원(동산제통의원, 구미)

- 4. 문경 선유동 계곡
- 5. 청송 절골계곡
- 6. 포항 내연산 계곡

처음 Ski 타던 추억



장 석 범 과장
포항성모병원 안과

내가 즐기는 취미생활 중 하나가 Ski이다. Ski를 잘 타진 못하지만 오랜기간 타다보니 Ski를 즐기는 경지에 이르렀다할까? 내가 처음 Ski를 탄것은 의대 예과를 마치고 본과 올라가기전 겨울방학이었다.

아마 1973년 1월로 기억한다. 지금은 Ski가 대중적인 스포츠라서 누구나 즐기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Ski는 비싼운동으로 부르조아들만 타는 것으로 여겨졌었다. 나는 본과에 올라가면 놀 시간이 없다며 부모님께 졸라 Ski여행을 하게 되었다.

그해 한국일보에서 대관령에서 5박6일간의 Ski School을 운영했는데 그곳에 신청하여 가게되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진 않지만 밤11시 청량리역에 집합하여 밤차를 타고 출발해 다음날 새벽 강릉에 도착한뒤 간단히 아침식사를 하고 버스로 대관령에 들어갔다. 당시 고속도로가 없던 시절이라 구불구불한 대관령길을 돌아가는데 경치가 기가막힐정도로 장관이었다. 대관령 황계근처에 있는 대관령산장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각자 Ski와 부츠를 받았는데 Ski장비라는게 요새와 달라 Ski는 투박하며 크고 부츠는 워커모양으로 끈으로 매서 신어야했다.

첫날은 산장 앞마당에서 Ski신고 벗는 요령과 걷는법 넘어지는 법 등을 배웠다. 참가인원이 50명이어서 이걸 배우는데만 몇시간이 걸렸다.

다음날 트럭에 Ski를 싣고 우리는 버스를 타고 Slope를 찾아가는데 요즘같은 Slope가 아니라 그냥 경사진 언덕에서 Ski타는 연습을 했다. 우선 Ski를 들고 언덕위로 걸어올라가 언덕에서 A자 대형으로 내려오는 연습을 하는데 올라가는데 10~20분 정도 걸린것 같은데 내려오는데는 1분도 안 걸렸다. 더구나 제대로 설줄도 모르니 내려와서는 넘어지며 멈추는게 다였다. 몇번 오르락 내리락 하니 너무 힘들어 나중에는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고 Ski벗고 눈싸움하며 놀다가 추워지면 다시 내려가곤 했다. 다음날 제대로 된 Slope로 가서 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Lift가 없으니 무조건 걸어 올라가야한다는 것이었다. 그당시 내가 20대 초반이

Ski는
마약과 같다고
어떤사람이 내게
말했는데
나에게는 진짜
마약과 같았다.

였으니 걸어올라갔지 지금같으면 절대못한다. 그래도 (거의) 대학생들이라서 열심히 탔었다.

숙소 또한 대관령 산장이 요즘 Hotel이나 콘도 같지 않아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산장중앙에 커다란 빼치카가 있어 밤에 통나무를 올려놓고 불을 피우면 밤새 타므로 우리는 낮에 힘들게 운동했으면서도 밤에는 빼치가 옆에 둘러앉아 술마시고 기타치며 노래하고 밤을 새웠다. 5박6일간 매일밤 놀고 마시느라 여행갔다와서 1박2일을 계속 잠만 잤던 기억이 난다.

또 그 당시는 Ski복이 없어서 거의다 두꺼운 코트에 털장갑 털모자를 쓰고 Ski를 탔으니 Fashion이 가관이였다. 그때는 시설이 열악해서 Ski를 제대로 배우진 못했지만 주변경치가 좋았고 눈이 많이와 운치가 있었다. 하루는 밤새 눈이 너무 많이와 산장에서 대문이 눈에 막혀 열리지 않아 창문을 통해 나가서 눈을 치우고 문을 열어야만 했다.

또 길을 내느라 눈을 양옆으로 치우면 옆으로 눈이 사람키 정도로 쌓여 저녁때 눈속을 파고 들어가면 동굴처럼 안에 앉아 놀수도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Ski장에가는 교통편도 밤새 가야했고 숙소도 불편했으며 Slope에 Lift도 없어 걸어올라가야하는 힘든 Ski여행이었지만 그 5박6일간의 즐거웠던 기억이 내 가슴속에 남아있어 그후 30년 넘게 매년 한번도 거르지않고 Ski장을 찾았다(혹시 1~2번 빠진적이 있으려나?).

Ski는 마약과 같다고 어떤사람이 내게 말했는데 나에게는 진짜 마약과 같았다. 의사국가고시 치자마자 달려간곳도 Ski장이며 해군근무시 배를 타고 있을때도 함장에서 뇌물(양주) 바치고 Ski장으로 갔었다.

요즈음에는 Ski장에 가도 옛날처럼 그렇게 열심히 타진 않는다. 그냥 그곳에 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기 때문이다. 아직 Ski경험이 없으신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다. 한번쯤 Ski에 빠져보시라고 더 늙기전에....



개원을 축하합니다 (2010년 4~6월)



포항시

박 강 식 _ 우리비인후과의원
(791-817) 포항시 북구 장성동 979
에원빌딩 2층
T. (054)255-7582 / F. 255-7584

경주시

이 준 호 _ 준이비인후과의원
(780-807)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350-5 안강농협중앙지점 2층
T. (054)763-1140 / F. 763-1140

조 종 린 _ 일신연합의원
(780-951) 경주시 용강동 1299-11
T. (054)771-7588 / F. 771-6155

구미시

김 인 환 _ 구미정형외과의원
(730-923) 구미시 원평1동 336-18
T. (054)457-4794 / F. 458-4958

김 봉 재 _ 강남병원
(730-924) 구미시 원평1동 1037-13
T. (054)458-9300 / F. 458-9308

문경시

이 용 철 _ 연세사랑의원
(745-886) 문경시 점촌동 176-7
T. (054)553-2358 / F. 554-2358

여 영 일 _ 한국의원

(745-804) 문경시 문경읍 하리 70-5
T. (054)572-0008 / F. 572-8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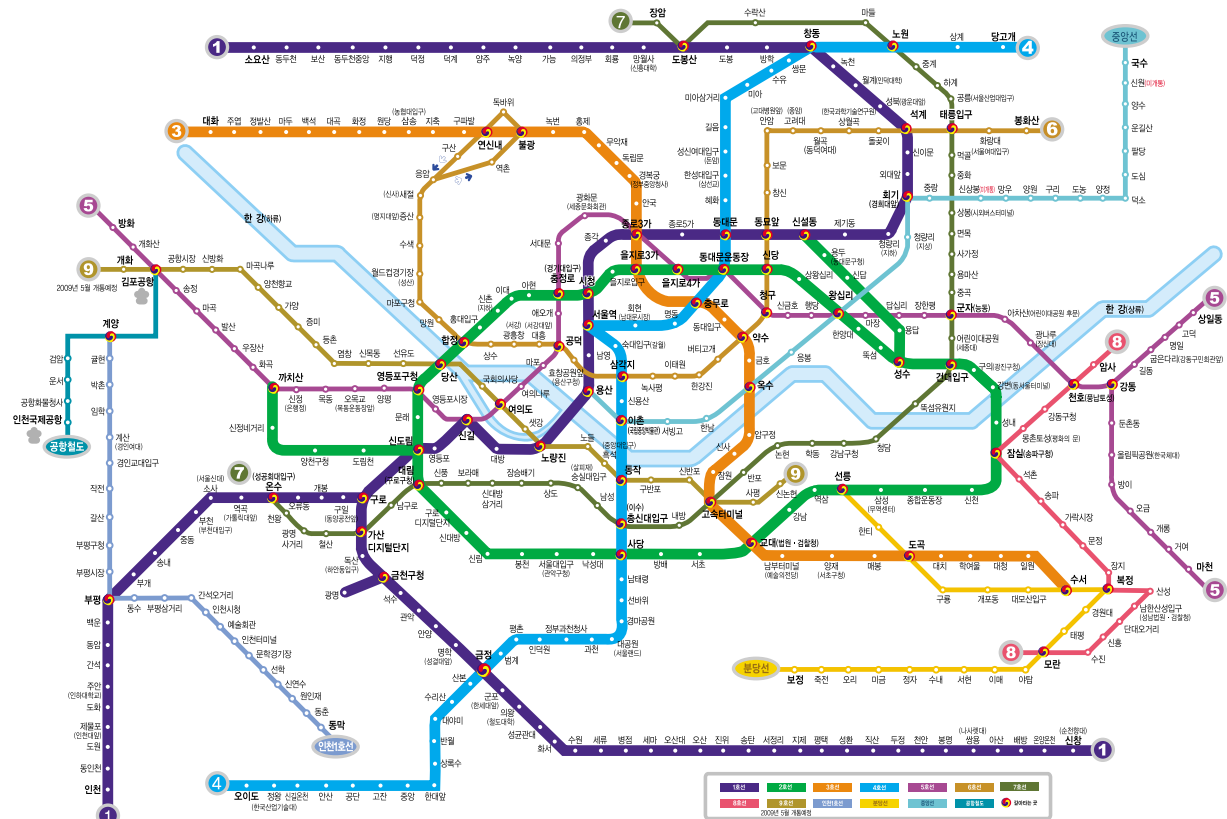
군위군

은 종 우 _ 우보큰사랑의원
(716-842)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1222-4
T. (054)382-8222 / F. 382-5222

의성군

김 영 진 _ 안아픈마을안계서울의원
(769-933)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850-17
T. (054)862-7778 / F. 862-7779

서울 지하철 노선도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 NO.1!



부신피질호르몬제

피디^정

메칠프레드니솔론



원료약품의 분량 1정 중

메칠프레드니솔론(U.S.P) ······ 4mg

효능 · 효과

1. 피부질환 : 천포창, 중증 다형성 홍반(스티븐스-존슨증후군), 박탈성 피부염, 수포성 포진양 피부염, 중증 지루성 피부염, 중증 건선, 균상식 육종
2. 알레르기성 질환 : 기관지 천식,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혈청병, 계절성 또는 다년성 알레르기성 비염, 약물과민반응
3. 교원성 질환 :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루푸스 신염), 전신성 피부근염(다발성 근염), 급성 류마티스성 심염
4. 내분비 장애 5. 류마티스성 장애
6. 안과 질환 7. 위장관계 질환 8. 호흡기계 질환
9. 혈액 질환 10. 악성 종양성 질환 11. 부종성 질환 12. 신경계 질환 13. 기타

보 험 코 드 A21950881

피디^정의 주성분인 **Methylprednisolone**은 기존 Prednisolone보다 **항염효과**가 강하고, 상대적으로 Mineralocorticoid의 작용이 약하므로 부종 발생 등의 부작용이 낮은 부신피질 호르몬제제입니다.

※제품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64 대륭테크노타운 13차 3층 / TEL:02)2109-3300 • FAX:02)2109-3388



Bl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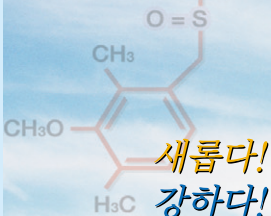
Anti-Ulcer Agent

Esoprazol C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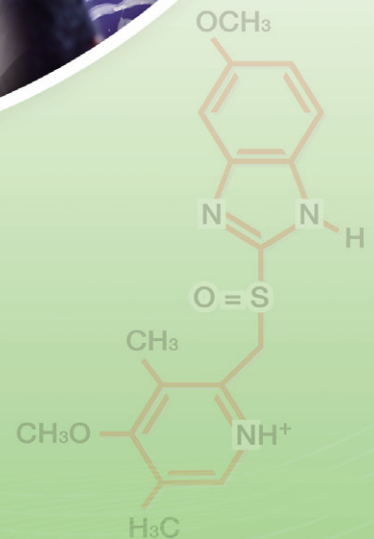
(Esomeprazole 40mg)

세계최초 개량신약 - 에소프라졸 캡슐

소화성궤양치료제



- 새롭다!** 개량신약 - Free Base Esomeprazole
- 강하다!** PPI중 최장 시간 위내 pH4이상 유지
- 빠르다!** 단기간에 Heartburn 증상 소실
- 편하다!** On-demand 요법으로 경제성, 편의성 증대
- 효과적이다!** Esoprazol 3제 요법의 높은 H.pylori 박멸율



인류를 건강하게 —
경동제약주식회사
 www.kdpharma.co.kr